

태영그룹, 경주에 대규모 종합휴양관광단지 세운다

경북도·경주시·태영그룹, 투자 양해각서 체결

1조200억원 들여 천북관광단지·보문빌리지 조성

우리나라 최대의 관광도시인 경주 천북에 새로운 대규모 종합휴양관광단지가 조성되고 보문단지에는 경주의 ‘비블리 힐스’라고 할 수 있는 최고급 빌리지가 조성된다.

2일 경북도와 경주시, 태영그룹은 경북도 사립실에서 김관용 지사, 최양식 시장,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 등 각 기관 및 업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북관광단지 및 보문 빌리지 조성사업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르면 문화관광도시 경주의 대표 관광랜드마크인 보문관광단지를 활성화 하고,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취향과 유형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해 태영그룹이 ‘천북관광단지’ 조성에 8,200억 원, 보문에 경주의 ‘비블리 힐스(Beverly Hills)’라 할 수 있는 최고급 빌리지 조성에 2,000억 원을 투자한다.

태영그룹은 기존의 고정화된 관광형

태에서 탈피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코자 2016~2022년까지 계열사인 ㈜태영건설을 통해 새로 조성되는 천북관광단지 210만평에 호텔, 에코랜드, 수목원, 골프장, SBS 촬영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아울러 보문 블루원과 연결한 13만평에는 최고급 빌라를 신축할 계획이다.

태영그룹은 ㈜태영건설, ㈜SBS, ㈜블루원, SBS미디어 홀딩스(주) 등 43개사로 이뤄진 건설, 레저, 물류, 무역, 방송 등의 사업 영역으로 한 기업으로 이번 유치는 굴지의 태영그룹에서 투자하는 만큼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주시는 태영그룹의 천북관광단지 및 보문빌리지 조성사업 경주투자자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기업체 참여, 경주의 새로운 관광 모멘트 등 경제 활성화, 지방 세수증대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일 오후 경북도 사립실에서 김관용 지사,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 최양식 경주시장(사진 왼쪽 일곱번째부터 순서대로)이 천북관광단지 및 보문 빌리지 조성사업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주지역 도의원들과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천북관광단지 및 보문빌리지 조성사업 투자로 경주의 관광여건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분야별 행정지원을 다해 앞으로 경주 관광분야의 신규투자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경주는 완벽한 관

광인프라와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KTX, 경부고속도로, 동해안 고속도로 개통 등 접근성 또한 뛰어나 연간 2,000만 명이 찾는 최대 관광지로서 손꼽힌다”며 “경주가 한류문화와 미디어가 연계된 체류형 관광지로 특

화돼, 유커 관광객 유치 등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관광도시, 최고의 종합휴양관광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형기 기자akrgudr167@hanmail.net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경북도, UN NGO 컨퍼런스 성공개최 기반 다져

관계기관 준비상황 점검·보고회

경북도는 2일 김현기 행정부지사 주재로 오는 30일부터 6월1일까지 3일간 경주에서 개최되는 제66차 UN NGO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북도, 경주시, 조직위, 도경찰청, 도소방본부 등 관련기관이 참석해 ‘컨퍼런스 준비상황 점검 및 보고회’를 가졌다.

‘세계시민교육-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을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경주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UN 공보국이 주최하고 경북도가 지원하는 아시아 최초의 회의로, 전 세계 100여개국 2,500여명의 NGO 대표가 대거 참여하며 5월 30일부터 6월1일까지 2박3일간 활발한 토론의 장을 펼친다.

이번 점검 및 보고회는 컨퍼런스 개최 한 달여 정도를 앞두고 관련기관 합



동으로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보고와 아울러 의견·경호·안전 및 교통대책 등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 성공적 행사 개최에 차

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각 기관은 상호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한편, 원활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 행사당일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춰 행사 기간 동안 긴급 상황처리 등을 위한 상시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도는 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 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자체적으로 행사지원 추진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행사 주관기관인 UN NGO 컨퍼런스 조직위 사무국과 개최지인 경주시와 긴밀히 협조하며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관용 도지사는 “이번 제66차 UN NGO 컨퍼런스는 아시아-아프리카 최초로 개최되는 것 임은 물론, 신 도청 시대에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관련기관이 모두 합심해 성공적 개최가 되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박형기 기자akrgudr167@hanmail.net

필리핀 관광객, 경북의 봄에 빠지다

경북도-관광공사 계절상품 개발
상반기만 관광객 500여명 유치

경북을 찾은 필리핀 관광객이 엄지를 치켜세우며 ‘마간당’을 외치며 경북의 봄을 즐기고 있다. ‘마간당’은 필리핀 언어인 파갈로그어로 ‘아름답다’라는 뜻이다.

경북도와 경북관광공사가 해외 관광객 유치 전략으로 올 상반기에만 필리핀 관광객 200여 명이 경북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관광객 유치 성공은 계절별 관광상품을 개발해 필리핀 현지 여행사 10여 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판촉한 결과이다.

필리핀 관광단 첫 번째 일행 30여명은 지난달 30일 경북 안동과 문경을 찾았다.

이들은 문경 찻사발 축제장 및 문경

의 체험코스인 관광사격장, 레일바이크를 방문해 체험을 즐겼다. 이어 예천 양궁장과 안동 하회마을 등을 관광하며 경북의 봄을 만끽했다.

경북관광공사는 지자체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관광단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가을의 경북’ 상품을 기획하고 홍보 판촉해 400명 이상의 필리핀 관광객이 2박 이상 경주, 문경 일원에 머무르며 경북의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대유 사장은 “경북도는 봄과 가을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체험이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며 “공사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확대 개편해 더 많은 해외 관광객이 경상북도로 유치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동 기자press88@hanmail.net



보호와 사랑으로
행복을 찾아주세요

행복한 어린이가 나라의 미래입니다.

음식 맛·냄새가 인간 수명을 좌우한다

포스텍 연구팀, 연구결과 화제

음식의 맛과 냄새가 사람의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포스텍은 2일 이승재 교수와 박사과정의 류라트아라탄이 예쁜꼬마선충을 이용해 연구한 결과 사람은 맛과 냄새를 감지하는 감각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활발하게 작용하면 체내의 인슐린 유사물질이 늘어 몸 전체의 노화를 촉진시키고 수명을 줄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생체 구조가 단순하고 3주간의 짧은 생애주기를 가진 꼬마선충은 노화를 조절하는 유전자 포유동물과 같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이 쉬워 수명 연장 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로 주목받고 있

다.

꼬마선충은 환경요인을 감지하는 감각신경계가 수명을 50%까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감각신경세포가 어떤 요인에 반응해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꼬마선충의 먹이인 대장균에서 감각신경에 자극을 주는 화학물질을 추출해 실험한 결과 맛과 냄새를 감지하는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 'INS-6'라는 유사 인슐린인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이 신경세포가 수명연장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FOXO 인자'의 활동을 둔화시켜 체내의 다른 부위에 신호를 보내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는 것을 알아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한 입씩 맛보면 살이 찌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연구에 따르면 맛과 냄새만으로도 체내의 인슐린 유사물질이 늘어 몸 전체의 노화를 촉진시키고 수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맛과 냄새를 감지하는 신경세포의 활성화가 수명 단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빛을 통해 특정 감각 신경계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광유전학 기술을 사용한 자극으로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INS-6' 인슐린 호르몬이 수명을 조절한다는 것과 감각신경세포가 주변의 환경 변화를 감지하

는 과정이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첫번째 단계라는 것, 광유전학 기술이 앞으로 노화와 수명 조절 기술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승재 교수는 "음식의 영양분이 아닌 냄새와 맛 자체가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감각신경세포에 가해지는 자극으로 인해 수명이 변하는 메커니즘을 발견한 이 연구가 노화와 수명조절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생명과학분야의 국제학술지인 '진스 앤 디벨롭먼트'의 최신호 표지 논문에 실렸다.

이종근 기자jig7941@naver.com

“한방의 향기 가득한 약령시로 오이소~”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문화관광 유망축제'인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가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대구 약령시 약전골목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39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한방의 향기, 예술의 향기 가득한 약령시로 오이소!'란 슬로건을 아래 한의학 관련 프로그램을 비롯해 관광객들이 다 같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전시, 문화, 공연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사상체질 진단, 무료

한방진료, 한방 환 만들기, 전통한복 체험 등 약령시 축제만의 고유성을 살리면서 젊은 층과 외국인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스탬프 골목투어, 달빛걷기, 약령패기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약령시 상인들과도 함께할 수 있는, 약령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색다른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축제는 첫째 날인 4일 오전 11시, 약령시 개장을 알리는 '고유제'로 축제의 서막을 알린다.

고유제는 초근목피(草根木皮)를 한약재로 처음 쓰기 시작한 염제(炎帝)

신농씨(神農氏)를 모시는 고사로 약령시의 변장과 시민의 건강을 기원하며 전통 제례악 공연에 맞춰 지내는 의식이다.

이어서 오후 2시 개막식은 내빈과 약령시 상인,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어지전달과 테이프커팅이 있고, 참여자들과 함께 대형 약탕기로 약차를 나누는 '정성탕 나누기 퍼포먼스'가 이어진다.

올해의 약차는 구기자로, 구기자는 한방적으로 신장과 간장의 음기를 보충하는 한약재로서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력이 왕성해지며 세

포의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축제기간 중 메인무대에서는 주제공연, 프린지 공연, 힐링콘서트 등 매일 시간대별로 다양한 주제의 문화공연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전국의 한의학도들이 참여해 실력을 겨루는 '청년허준 선발대회'가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되고, 현장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약재를 구매할 수 있는 '한방탐구생활&경매', 다양한 주제의 약령 프린지 등 매일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레크형 행사가 메인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구미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폐회… 5일간의 일정 마무리

조례안·기타안 등 총 8건 의결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제20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임시회는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등 7건 및 기타안 1건,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심사,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임시회 마지막날인 2일 간담회장에서 구미시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경찰서(서장 김대현)주관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치안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치안설명회는 치안예산의 집행과정 및 현장성과를 직접 설명 하는 등



치안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협업기반 확산의 장을 마련했다.

김대현 서장은 “기초치안 확보 및 든든한 생활법치 확립에 치안역량을 집

중하고 민·관·경이 협력해 맞춤형 지역치안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익수 의장은 “의회를 방문해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준 김대현 경찰서장

및 경찰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시민들의 치안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안동, 경북바이오2차 산단 조성 조례 제정

김백현 시의원 발의 조례안 의결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필요한 규정이 마련됐다.

지난 달 29일 안동시의회는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백현 시의원(풍산, 풍천, 일직, 남후)이 발의한 '안동시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조례에는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의 방법 및 한도, 주주권 행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또한 특수목적법인 출자의 재정지원, 권한의 위탁 등 세부추진사항에 대한 근거도 담고 있다.

이에 앞으로 사업관리운영이 효율적



으로 이루어질 경우 입주회합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이루어져 성공적인 산업단지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시의원은 “도청 신도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도시가 행정중심 복합형 자족도시로 성장해야 하고, 아울러 도청 신도시 주변에 국가산업단지 등을 유치해 일자리가 창출되어 인구가 유입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제정은 그런 의미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윤재철 기자chal20152naver.com

도교육청, 인성교육 네트워크 사업 전국 최고

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경북교육청은 지난 달 29일 최종 발표된 전국 인성교육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 공모에서 전국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인성교육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간의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인성교육 지역단위 협력체를 구축하고 지자체, 유관기관 및 대학 등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교육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전국 15개 교육지원청을 선정할 후 2차 발표 심사로 최종 10개

교육지원청을 선정했으며, 경북은 전국 10개 중 4개 교육지원청(안동, 구미, 상주, 문경)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4개 교육지원청은 각 지역별 특성과 상황에 따른 특색 있고 체계적인 사업 운영 계획 및 현장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됐으며, 각 교육지원청별 2,000~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앞으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민간단체, 대학 등으로 구성된 인성교육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통해 각 교육지원청별 인성교육 자원 확충 및 활용에 초점을 두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 교육공동체가 함께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포항공항→경주포항공항 명칭변경 추진

김석기 국회의원 당선인, 공항 활성화 위해 변경 제안

제20대 국회의원 경주시 김석기 당선인(사진)이 1년9개월(2014년7월1일~2016년3월30일)간의 활주로 재포장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3일 재 개항을 앞두고 있는 ‘포항공항’ 명칭을 ‘경주포항공항’으로 제안해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 때 관광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원원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요커를 성공적으

로 유치해 강원도에 1조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낸 강원도 양양공항의 성공사례처럼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467km에 달하는 청정 바다인 동해안 해안선의 관광자원을 5개 시·군이 공동으로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별 관광특화 상품 개발 등의 관광객 유치(특히 청정 바다를 좋아하는 중국 요커 유치) 연구도 진행돼야 한다.

특히 현재 남북노선으로 돼 있는 항공노선에 동서노선을 추가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포항-여수 간, 포항-군산 간 같은 동서노선은 현재 육로만 있어 항공노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비즈니스 수요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당선인은 공항공사 사장 재임 중이던 지난해 공사를 시작해 재 개항하게 된 것을 먼저 축하하며, “1970년 설립된 포항공항이 노선의 한계로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이제 재 개항을 하면서 공항 활성화에 포항과 인근도시가 거는 기대가 크다”며 “보잉 737(180석 기준) 1대 운항 시 1편당 3억2,000여만 원의 관광수익, 4,900여만 원의 생산유발과 고용 유발 등의 경제 유발 효과를 볼 수 있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공항 활성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016~2020년까지 추진할 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으로, 지방공항의 역할이 더욱 커질 계획이며, 포항공항을 경주포항공항으로 명칭변경을 하게 되면 국제적 지명도가 높은 경주의 내임 밸류로 공항 활성화에 기여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포항은 포항공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대폭 늘어나 공항활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경주는 천년고도 공항을 얻

게 돼 관광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원원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요커를 성공적으로 유치해 강원도에 1조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낸 강원도 양양공항의 성공사례처럼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467km에 달하는 청정 바다인 동해안 해안선의 관광자원을 5개 시·군이 공동으로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별 관광특화 상품 개발 등의 관광객 유치(특히 청정 바다를 좋아하는 중국 요커 유치) 연구도 진행돼야 한다.

특히 현재 남북노선으로 돼 있는 항공노선에 동서노선을 추가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포항-여수 간, 포항-군산 간 같은 동서노선은 현재 육로만 있어 항공노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비즈니스 수요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당선인은 “이런 점들을 잘 활용한다면 포항공항의 활성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며 “포항시와 경주시의 성장잠재력과 관광자원을 이용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공항 명칭변경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경북도, 포항시, 경주시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5월말 20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즉시 국토부장관을 만나 포항공항 명칭 변경 건을 적극 추진할 의지를 비추고 있다.

현재 공항의 명칭변경 절차는 국내에서 명칭변경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 최종 결정을 한 후, 국제기구 ICAO와 IATA에 통보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박형기 기자akrgudr167@hanmail.net

“외국인, 전통문화 즐기는 관광홍보 중요”

도의회 예결특위 이진락 의원

관광객 유치 활동 개선 당부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식, 구미) 이진락 의원은 2일 오전 열린 도 본청 10개 실·국과 도 교육청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를 통해 지역 관광지의 호텔 등에 숙박하는 단순 일정 위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보다는 지역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직접 느낄 수 있는 관광



홍보 활동을 주문했다.

또한, 문화해설사 관련 교육 예산 규모가 매년 동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보다 확대해 심도 깊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우수 해설사 양성 과정 등 수준 높은 문화해설사 양성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박형기 기자akrgudr167@hanmail.net

도, 식중독 지수예보 문자발송 서비스 실시

경북도는 하절기를 맞아 5월부터 9월까지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큰 집단급식소와 식품제조업소 위생관리 책임자 등 2000여명의 수신 희망자에게 식중독 지수 예보 및 예방요령에 대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 문자서비스는 미리 식중독지수를 파악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업소 대표나 주방 책임자에게 식중독 위험 사항을 직접 경고해 주는 시스템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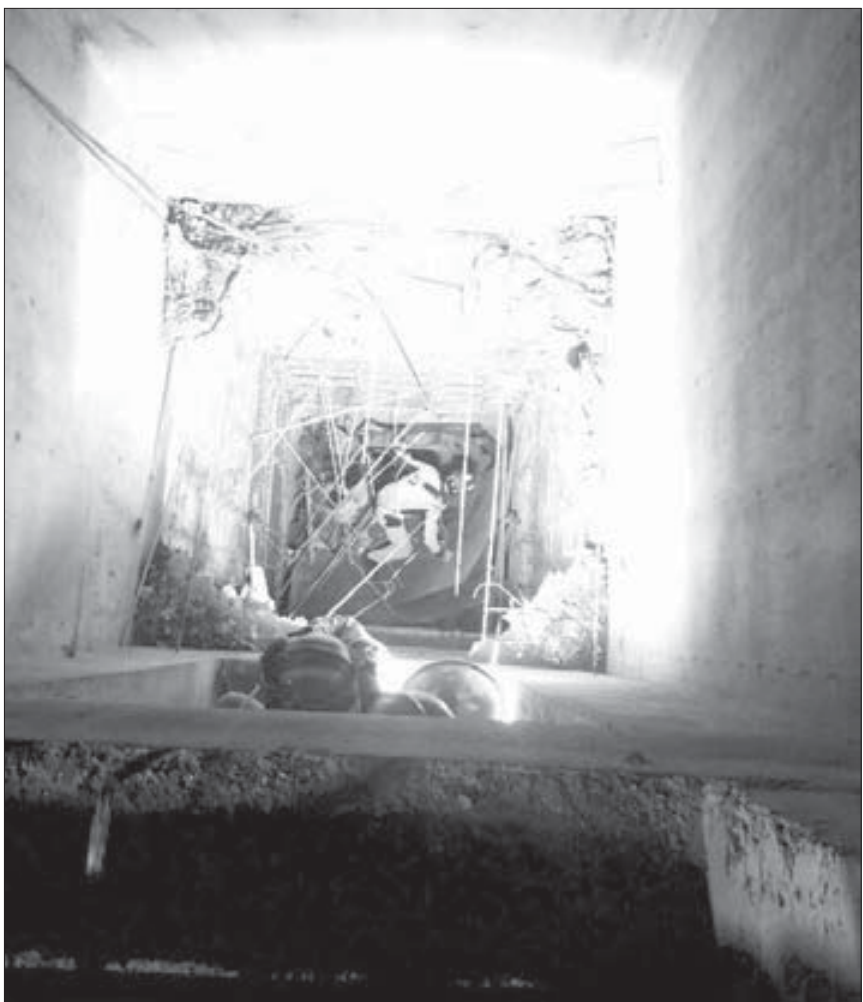
식중독 지수예보는 기온과 습도의 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백분율로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 35미만은 ‘관심단계’(음식물 취급주의) 35이상~70미만은 ‘주의단계’(6시간이내 식

중독 섭취) 70이상~95미만은 ‘경고단계’(4시간이내섭취) 95이상은 ‘위험단계’(조리즉시 섭취)이다.

도는 최근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환자 발생을 대비해 도내 식중독 담당자를 중심으로 식중독 대책 및 상황 처리반을 상시 운영하고 영업자가 자발적인 위생의식전환으로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정준배 도 식품의약과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영천소방서 구조대원들이 사고가 발생한 윤창중합건설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천소방서, 공사장 추락사고 인명구조

영천시 완산동 소재 윤창중합건설 현장에서 2일 오전 11시 35분께 엘리베이터실 공사 도중 가설 비계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현장 근로자 김모씨(62세) 등 3명이 추락해 부상을 당했다.

사고 소식을 접한 영천소방서(서장 장훈옥)는 구조공작차와 구조구급차를 신속히 출동해 3층 높이에서 추락한 김모씨(62세)와 강모씨(51세)를 구조해 영천 영대병원으로 이송했다.

또 가설 비계에 매몰된 하모씨(52세)는 구조대원들이 50여분간의 구조작업 끝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훈옥 서장은 “지난 1월에도 관내 공사현장 추락사고가 발생했었다. 최근 공사장에서 추락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안전장구 착용 및 생명줄 등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작업 전 간단한 스트레칭 등으로 반드시 몸을 풀 후 작업에 임하기 바라고 안전사고방지에 항상 신경 써야 된다”고 당부했다.

박삼진 기자wbai12@naver.com

경북경찰청,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 광역 수사대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김 모씨(30세)와 프로그램 개발자 박 모씨(44세) 등 13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

또 운영총책을 혐박해 수백만 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이 모씨(38세)와 대포통장을 팔아 넘긴 박 모씨(29세)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사이트에 가입한 후 도박을 한 혐의로 김 모씨(38세)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90명을 사법처리했다.

총책 김씨(30세) 등은 경산과 부산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픽스터(스포츠 경기결과와 예상 정보 제공자)로 활동하면

서 가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회원 1,000명을 모집한 뒤 5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약 9억 원의 불법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개월간 70여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배팅한 도박행위자 등 1,000만 원 이상을 이체해 도박을 한 75명을 적발해 전원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프로그램 개발자로부터 사이트 관리자,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원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인터넷 도박행위는 적발되면 처벌 받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경주췁, 안전한 등하꺽길 만든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지키기에 적극 나섰지만 운전자들이 제대로 법규를 지켜지지 않아 경찰이 집중단속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경주경찰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스쿨존내 신호위반, 안전띠미착용 등 법규위반에 대한 집중단속 및 스포식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 운영,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한 캠페인을 실시

하는 등 운전자의 의식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등 위반행위는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가중처벌 되며, 그 외 야간·심야시간 및 방학기간, 공휴일 등에는 일만도로 제한속도 기준으로 단속된다.

경주경찰서 배형철 교통계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지속적인 교통안전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안전한 등하꺽길 만들기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기 기자akrgudrl67@hanmail.net



아침 등교시간대에 경주경찰서 교통경찰이 지역 모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스포식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를 이용해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포항시, 오염물질 공공수역 유입 사전 차단!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

포항시가 2일부터 오는 9일까지 녹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합동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와 농식품부, 경북도, 시·군 등이 총 30명 10개조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경북도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12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및

퇴·액비 야적·방치 및 공공수역 유출 여부, 시설설치자의 가축분뇨 불법처리여부, 재활용업체의 설치·운영기준 준수여부, 미신고 농경지에 액비살포 여부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합동 점

검기간에 적발된 업소 중 사안이 미미한 경우에는 현장 지도하고,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등 고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근 기자jig7941@naver.com

구미 원호~대망간 도로 7년 만에 조기개통

교통편의 제공·통행불편 해소

도로(대3·20호)가 지난 1일 개통됐다.

원호~대망간 도로는 총 연장 2.55km, 폭 25m, 4차선 도로로 지난 2004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돼 보상을 시작, 2010년부터 공사에 착공해 올 7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조기 개통됐다.

현재 구 도로(시도 4호선)는 폭이 5m로 협소하고 주변 개발로 인한 대형차량 통행증가로 차량 교행이 불편해 보행자의 통행 안전 확보가 어려웠다.

원호~대망간 도로는 교통 안전시설인 조명식 안전표지판 및 과속카메라 합체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원활한 차량통행 및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다.

구미시는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이 사업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총사업비 210억 중 국비 81억, 도비 8억을 확보, 원활히 사



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됐다.

남유진 시장은 “보상협의 지연 등 도로개통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

았다”며 “이번 도로 개통으로 고아음원호리 및 대망리 지역 정주여건 향상 및 지역발전 기여 등 차량 통행 불편 해

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세계속의 울릉, 명품 녹색 관광설 조성!

울릉도·독도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봄여행

천혜의 자연과 민족의 혼이 살아 숨쉬는 곳!
울릉도·독도로 오세요.

울릉군
www.ulleung.go.kr

경북민물고기연구센터서 생태체험 즐기자

어린이날 체험행사 ‘풍성’

경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는 제 94회 어린이날을 맞이해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생태체험 학습의 장(場)을 제공한다.

센터에서는 생태체험관 및 야외 행사장 내에 ‘미니ZOO 특별체험전, 민물고기 맨손잡기 체험, 먹이주기, 야생화 화분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열었다.

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어린이 및 온 가족들에게 뜻 깊은 추억을 선물하고자 미니ZOO 특별체험전을 개최해 평소 접하지 못했던 살아있는 대형 뱀, 이구아나 등 파충류 10여종과 육지거북이, 앵무새 등 다양한 동물들을 직접 만져보는 체험기회를 제공 할 계획이다.

부대행사로 민물고기에게 먹이를 직접 주면서 먹이 먹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민물고기 사료주기체험’, ‘민물고기 맨손잡기 체험’ 통고산자연휴양림 협조로 진행되는 ‘야생화 화분 만들기’ 등 눈으로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풍성한 행사들을 준비했다.

특히, 민물고기 맨손잡기체험행사는 아이들이 직접 물에 들어가서 금붕어를 잡고, 잡은 금붕어는 작은 사료와



함께 집에 가져가서 키울 수 있어서 아이들 정서에 도움이 되는 최고 인기 있는 코너이다.

행사당일 어린이는 무료 입장하며,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물고기를 비롯한 우리나라 토속어종 및 외래어종을 지상 1층과 지하1층 17개 학습테마로 150여종 5,000여 마리를 전시운영, 환경오염 등으로 사라져 가는 우리나라 고유의 민물고기를 소개함으로써 민물고기 분야에서는 국내 단연 최고를 자랑하고 있으며 경북의 유명한 관

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도 민물고기생태체험관은 우리 것이지만 소홀히 여겨져 왔던 토속민물고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2006년에 건립됐다.

2008년 10월 환경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생물자원보전시설’로 등록,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지정 ‘과학관’으로 등록돼 ‘대구·경북환경문화상’,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최우수연구기관’ 등 최고 권위의 상들을 연이어 수상 하는 등 名品 전시관으로 빠르게 자

리매김 하고 있다.

도 민물고기연구센터 김철호 소장은 이번에 개최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뿐만 아니라 여름성수기 및 겨울방학 특별전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타 전시관과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 스토리텔링이 있는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으로 발돋움 해 나갈 계획이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신청사 시대 발 맞춰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개편

이용자 중심 편의성 살려 참~ 쉽죠?

한옥 신청사 배경 친밀도 제고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2일 신청사 시대와 발맞춰 명품 경북교육을 홍보하고,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증대시킨 새로운 홈페이지를 오픈한다.

개편 홈페이지는 기존 정보전달 중심 포털 디자인에서 벗어나 반응형 웹을 적용한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디자인으로 구성했고, 아름다운 한옥의 신청사를 배경으로 해 이용자들과의 친밀도를 높였다.

기능면은 웹접근성, 웹표준, 웹호환성을 개선해 웹사이트 구축에 따른 각종 법제도를 준수했으며 민원인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메뉴구조 방식으로 개선하고, 문자서비스를 통해 민원처리결과를 안내하는 등 의사소통의 신속·편리성을 제공

한다.

재무정보과장은 “반응형 웹 적용으로 이용자들이 어떤 기기로부터 접속하더라도 동일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들과 소통을 강화한 홈페이지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신규농업인, 1대1 현장교육으로 꿈 이룬다

도, 귀농·귀촌 실습지원 연찬회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2일, 농업인 회관에서 도내 선도농가대표를 비롯한 귀농연수생, 시군담당자 등 3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는 현장실습지원사업의 성과 및 추진방향과 사업담당자, 귀농연수생, 선도농가에 대한 분반교육과

멘토,멘티의 상호역할, 갈등관리를 위한 소양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지난해 참여한 성주군 최원택 선도농가와 김경목 연수생이 우수 멘토-멘티로 선정돼 농촌진흥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지원사업은 초기 경험부족에 따른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귀농연수생(Mentee)과 선도농업인(Mentor)을 연결시켜주는 ‘멘토-멘티’형식의 교

류·협력사업이다.

이 사업은 참여 주체간 공감대 형성과 귀농연수생들의 귀농창업역량을 강화시키고 현지적응력 및 농업기술력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귀농인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한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등 우수농업인과 영농현장에서 3~7개월간, 1대1 개인교습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관심작목의 기

술을 직접 배울 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화합해 안정적인 정착과 마을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박소득 경북도농업기술원장은 “경북에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꿈을 이루고 행복한 농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경북 신청사에 어린이들 웃음소리 ‘가득’

도내 초등학교 초청 체험학습

경북도는 2일 도내 초등학교를 초청 ‘초등학교 1일 현장체험학습장’을 운영했다.

이날 구미 구운초등학교를 비롯한 10개교 144명의 초등학교들이 신도청을 방문해 ‘안전체험차량 체험’, ‘119종합상황실 견학’, ‘인터넷방송 제작 체험’, ‘내가 도의회 1일 의장 체험’ 등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경북도를 배우고 이해했다.

초등학교 1일 체험학습장은 초등학교 4학년 교과과정인 사회과 탐구 ‘경상북도의 생활’의 이해를 넓히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도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매년

운영하고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올해 51개교 1,227명이 계획돼 있다.

이날 김관용 도지사는 초등학교들과 기념촬영을 하면서 “도내의 어린 새싹들이 경북도를 바로 알고 이해해 여러 분들이 자라서 경북도 발전의 밑거름이 돼야한다”면서, 사인을 요청하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주며, “경북도의 미래가 더 희망찬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구미 구운초 류연지양은 “인터넷방송 제작 체험을 통해 경북도청에서 하는 일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으며, 특히 경북도와 도의회를 직접 견학하고 체험해 어려웠던 사회 과목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경북, 지역정보화강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

경북도는 2일 도청 강당(화백당)에서 지역정보화강사 150명을 대상으로 ‘2016년 지역정보화강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도 정보화 정책 및 지역정보화강사 사업 설명, 우수 활동사례

발표를 통한 정보 공유, 최신 정보화 이슈 특강 등으로 구성된 지역정보화현장을 이끌어가는 주역들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이해 및 활용사례’ 특강은, 향후 정보화 교육시

도민들에게 정보화 트렌드 전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된 참석자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의성군 박성필 강사는 우수 활동사례 발표를 통해 “정보화교육장이 단순히 컴퓨터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하는 소통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중권 도 자치행정국장은 “지역정보화강사 여러분의 작은 노력 하나가 정보 소외계층을 최소화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학랑주신, 행복영주!
선비의 멋·맛·흥에 취하다

꽃피는 5월에
영주로 놀러오소~

2016 Yeongju Seonbi Culture Festival

2016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기간_ 2016. 5. 6(금)~10(화) 5일간
장소_ 경북 영주시 선비촌 일원

대경경자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실시계획 승인

기업유치활동·토지보상 등 본격적 사업추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청장 도건우)은 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실시계획을 2일자로 승인·고시했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와 이인리 일원에 146만㎡를 개발한다.

지구 내에는 메카트로닉스 및 첨단부품, 바이오·의료, 지식서비스산업 등을 집적화해 국·내외의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외국인교육기관과 외국인 전용임대주택을 조성해 외국인 정주여건을 향상시킨다.

개발은 민간투자개발방식으로 사업시행자는 (주)삼진씨엔씨에서 오는 7월부터 토지보상과 공사를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3,687억원으로 국비와 도비 및 시비로 건설되는 도로와 응수공급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에 812억원, 보상비와 용지조성 등에 2,875억원이 투자된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오는 2020년에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2022년까지 기업유치가 완료되면 포스코, 포스텍 등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 및 연구기관들과 연계해 첨단부품소재산업, 신에너지산업 클러스터로 개발된다.

이에 따른 건설 및 생산파급 등 총 3조 9,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6,250명의 고용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도건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포항지역 및 국·내외 경제 침

체로 인해 지구 지정 후 수년간 사업이 지연돼 왔으나, 금번 실시계획 승인을 계기로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며,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준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첨단산업과 정주여건 그리고 지원시설들이 조화롭게 들어서는 명품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맞춤형 교육으로 약물 오·남용 ‘STOP’

북구청, 의료급여과다이용자 대상 ‘행복누리’ 사업 실시

대구 북구청은 3일까지 의료급여과다이용자를 위한 ‘행복누리’ 사업을 실시한다.

‘행복누리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이용과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맞춤형 운동과 약물 교육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수급권자들이 즐겁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북구청에서는 의료급여과다이용자 중 30명을 선정해 산격복지관에서 대구시약사회와 북구보건소, 북구자원봉사센터의 협조를 받아 전문강사를 초빙해 지난 달 29일부터 6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 이수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지급할 계획이다.

북구청 장원수 생활보장과장은 “이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건전한 의료기관 이용이 정착되기를 바라며, 교육 종료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더욱 알찬 교육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성규 기자jimu555@naver.com



대구-가스안전공, 안전 결의대회 관계기관 간 협력·공조체계 다져

대구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3일 오후 2시 어린이회관에서 대구시민 가스안전 결의대회와 가스안전기기보급 확대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시민을 비롯해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업계, 유관기관, 시민단체(주부교실, 안실련)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평상시 가스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과 공조체계를 재확인하고 화합을 다진다.

특히, 권영진 시장과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은 행사에 참석해 대구시민과 함께 ‘대구시민 모두가 가스사고 없는 안전도시 대구구현’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평소 가스안전관리에 공로가 많은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며, 그간 일선에서 연료공급과 안전관리에 노력한 가스업계에 대해 노고와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또 가스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분야별 역할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설물 안전검사, 도시가스·충전·판매사업자의 사용시설 공급 전·후 안전점검, 가스사용자의 검정된 기구사용과 자체 안전점검, 대구시의 취약시설 안전점검,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분야별 안전관리 규정 준수를 다짐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대성에너지(주), LPG 산업·판매협회 등 가스업계에서 공동으로 모금한 이웃사랑 성금 1,600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하는 이웃사랑 성금 전달식도 열린다.

한편, 대구시는 가스시설 개선과 가스안전기기 보급 확대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 1만3,199가구에 25억 원,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을 위해 4,058가구에 2억 원을 들여 완료했다.

올해에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 684가구에 1억 6,000만 원,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을 위해 4,000가구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김광석 길에서 ‘방천청년’의 열정을 만나세요

대구 중구 희망마을 사업 일환

아트마켓·푸드가판대 ‘개점’

대구 중구는 지난 달 30일 김광석길과 방천시장 일대에서 대봉1동 1마을1특화 복지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인 ‘방천청년 아트마켓’과 ‘방천청년 푸드가판대’가 개점식을 가졌다.

‘방천청년 아트마켓’은 동절기

(12월~2월)를 제외한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방천청년 아트마켓 복지협의체’ 등이 자수소품, 원목소품, 플라워 장식, 가족소품, 도자기 등의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한다.

‘방천청년 푸드가판대’는 남산기독교종합복지관이 아트마켓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며 계절별 간식과 기타다양한 마들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윤순영 중구청장은 “아트마켓과 푸드가판대의 상점은 주변 상인들의 상품과 중복되는 제품을 매제하고 판매 수익금 일부를 마을행사 및 청소년 장학금으로 쓰도록 주민협의회에 기탁할 예정이다”며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변상인들과 상생 발전할 것이다”고 말했다.

임성규 기자jimu555@naver.com

수성大 재단 정상화... 경쟁력 강화 총력

이사장 선출,정이사체제 전환

휴먼케어센터 신축 인프라 개선

해외취업 강화 현장실습 실시

그동안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돼 온 수성대학교 성요셉교육재단이 지난 달 30일 이사장을 선출하는 등 정이사체제로 전환했다.

수성대는 이에 따라 이날 학생 교육환경 인프라 개선을 위해 가칭 ‘휴먼케어센터’ 신축 기공식을 갖는 등 본격적인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성요셉교육재단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전 대구의료원 원장을 지낸 이동구 이사를 6대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2015학년도 교비회계 자금결산 및 2016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등을 의결했다.

새로 선임된 이동구 이사장(71)은 경북대 의대를 졸업, 경북대 의대 교수를 거친 뒤 지난 98년부터 4차례나 대구의료원 원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의료인이다.

수성대는 이날 오전 대학 운동장에서 연면적 1만1,200㎡, 지상 9층 규모의 가칭 ‘휴먼케어센터’ 신축 기

공식을 가졌다.

‘휴먼케어센터’는 간호학과 시뮬레이션센터 등 간호보건계열 학과의 각종 센터 및 실습실, 최첨단 강의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수성대는 학생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한 건물 신축은 물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학생들의 해외취업 강화와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광 등지에서 해외현장실습을 실시하는 ‘Global Job Training’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사회의 요구에 맞춘 ‘사회맞춤형’ 학과를 신설하고, 신입생 모집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과는 폐지하는 한편,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집 정원도 일부 줄이기로 했다.

수성대 김진선 총장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단합하고, 대학 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며 “해외 취업을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 및 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임성규 기자jimu555@naver.com

마음까지 치유되는
동상창의의원

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오후 6시(이후는 예약 진료)

토요일 : 오전 9시~오후 4시

공휴일 : 오전 9시~오후 2시(점심시간 없음)

경북 경주시 화랑로 21 ☎054-774-7474

홈페이지 : <http://www.동상창의원.com>

버거킹

경주보문점

경주시 엑스포로 80
미담시티 | 1층

☎054-749-0003

영업 | 0:00~22:00

BURGER
KING®

지·덕·체 고루 갖춘 건강한 미래 인재 육성

스포츠, 레저, 무예, 태권도, 유영영·수학원

본국사체육관

경주시 불국사초동2길 12-1 ☎054-746-0897

Barista 창업 교육<직장인, 일반생>

지역실업자,지역내개육성교육

경주시민을위한교육!!!

SiLa Vocational School

신라직업전문학교

노동부 지정 직업능력 개발시설

교육문의/신청 : 054-774-6225

<http://www.kjob.or.kr/>

<http://sillajob.alltheway.kr/>

경북 경주시 금성로 313 두산빌딩 4층 ☎054-774-6225 (월~금 AM 9시~ PM 6시) FAX 054-771-6225

한결같은 맛과 한결같은 마음

만들 수 있는 깨끗함!

신라명가

경주빵

경주명품

할매리방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140-2번지 ☎전화주문 054-771-6166

산내

유스호스텔 | 청소년수련원

경주시 산내유스호스텔

예약문의 | 054-753-1300, 054-751-7971 (7391)

어린이날 예천천문우주센터에서 신나게 놀자

체험프로그램·이벤트 ‘풍성’ 가족관람객에 기념품도 증정

예천군에 위치한 예천천문우주센터에서 5일 어린이 날을 맞아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천천문우주센터는 (재)스타항공우주에서 운영하는 과학관으로, 천체망원경을 통한 천체관측체험이 가능한 별천문대와 가변중력체험, 달중력체험 등 우주비행사 훈련체험을 할 수 있는 우주환경체험관, 다양한 천문모형이 전시된 천문학소공원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5일 어린이 날에는 천문, 우주체험 뿐만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체험내용으로는 신기한 드론을 직접 날려볼 수 있는 드론체험, 간단한 과학원리를 배워보는 종이헬리콥터 만들기, 별자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별자리판 만들기, 재미있는 퍼



즐체험 등의 체험부스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예천천문우주센터를 방문하는

가족관람객들에게 이벤트를 통한 기념품 증정도 예정돼 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추억

의 장소가 될 예천천문우주센터 어린이 날 체험에 대한 안내는 문의전화 (054-654-1710)나 홈페이지

(www.portsky.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덕수기자djang7@naver.com

‘5월은 우리들 세상’ ... 안동, 어린이날 큰잔치 개최

축하공연·체험행사·사생대회 등 진행

제94회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신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올해 15회째는 맞는 안동시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는 ‘오늘은 좋은날! 우리들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안동청년회의소 주관으로 5일 안동 탈춤공원에서 어린이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기념식과 축하공연,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열린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개행사로 국민

생활체육 안동시 합기도연합회의 합기도시범이 펼쳐지며, 이어 제1부 기념식은 오전 10시부터 어린이헌장 낭독, 대회사, 축하, 안동MBC어린이합창단의 ‘어린이날 노래’ 등 축하공연 등이 예술무대에서 개최된다.

제2부 축하공연으로는 볼거리가 풍부한 어린이 밸리댄스, 태권도시범, 댄스공연, 요들송 합창 등이 펼쳐지고 이날 ‘제31회 어린이 사생대회’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탈춤공원 일원에서 진행된다.

이 밖에 부대행사로 염색체험, 도자기로 만드는 사랑 빛기, 전통놀이 문화체험 등 재미있고 다양한 체험행사를 준비했다.

한편 5일 행사 시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탈춤축제장 뒤 안동체육관에서 상공회의소까지 축제장 길에 대한 차량통행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까지 제한된다.

김진환 아동보육계장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낙동강둔치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재철 기자chal2015@naver.com



단결과 화합의 어울림 한마당 ‘성료’

대구·경북 산림조합 임직원 체육대회 개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원장 이성권)은 지난 달 30일 2016년 체육대회 및 산불예방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중환) 및 경북지역 24개 산림조합 소속 300여명의 임직원을 비롯해 김중태 국회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 윤종도 경북도의원, 김정일 경북환경산림자원과장, 한명구 경북산림자원과장, 한명구 경북산림자원과장, 황형우 경북산림산업과장, 한동수 청송군수, 이태식 청송부군수, 이광호 청송군의회장 등 외빈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이날 산림조합 임직원들은 산불예방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풍선기동 쌓기, 바구니공 놀기 등 체육행사를 하며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이성권 원장은 “2015년 11월 개원한 연수원에서 대구경북지역 산림조합 임직원이 상호간 화합과 단결력 강화를 위한 체육대회를 실시하게 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산림조합으로 발돋움하자”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영주시농기센터, 현장중심 농촌체험교육 추진

영주시농업기술센터는 2일 농촌체험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영주교육지원청, 체험학습농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아이들에게 학교 내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농업·농촌 생활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과과정과 연계된 체험학습 및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현장중심 농촌체험교육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사)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에 위탁

해 9회 48시간에 걸친 농촌체험학습경영체의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체험프로그램의 기획, 운영기법, 모니터링 평가, 교재개발, 시범운영, 사례발표, 안전사고예방과 안전교육 등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해 농어촌체험학습지도사자격을 30명이 취득하게 했으며 창의적이고 특성있는 교구 교안개발을 위해 강원도내 우수농촌교육농장을 방문하여 현장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농촌체험학습농장과 체험마

을들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소셜네트워크를 통하여 농촌체험학습 활동의 정보교류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관계자는 “최근 주말농장, 유 초등생들의 농촌체험활동과 중등학교의 자유학기제 등 수요에 맞추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프로그램을 갖춘 체험농장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 번 협약이 6차산업의 확대에도 한 몫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덕수기자djang7@naver.com

LOCAL NEWS

안동 예천
문경 영주
봉화 청송
영양

경상투데이

2016년 5월 3일 화요일

7

봉화 명호면, 체납세 강력 징수

자진납부 홍보 안내 지속 실시

봉화군 명호면(원치언 면장)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달 2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명호면은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마을 분담 직원과 이장, 지도자, 산불감시원과 합동 연계를 납부촉력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호별 방문과 전화로 체납세 현황 고지 및 경제사정이 어려워 일괄 납부가 어려운 주민들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안내문 발송과 각종회의나 마을방송 등으로 체납세 자진납부 홍보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아갈 방침이다.

원치언 면장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과 규제를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효환 기자ryuhh8080@daum.net

영양군, 고추 바이러스 주의보

고추밭 주변 잡초 제거로 예방

영양군이 본격적인 고추재배기를 앞두고 지역 내 고추농가를 대상으로 고추밭 주변 잡초 제거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기술원 영양고추시험장에 따르면 지난해 고추가 재배된 밭 주변의 월동잡초를 수집해 고추의 주요 바이러스 6종에 대한 감염 여부를 유전자 진단으로 조사한 결과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와 잠두위조바이러스의 감염 비율이 20%로 나타나는 등 고추재배에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 이번 조사에서 감염이 확인된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는 잎에 모자이크 증상을 나타내거나 잎을 기형화 시키며, 줄기와 새순부위에 나타나면 괴저증상을 보이며 생육을 저하시킨다. 또 잠두위조바이러스는 잎에 퇴록반점 증상을 나타내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훈 영양고추시험장장은 “고추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생육저하로 인해 수량 및 고추품질이 저하 된다”며 “고추 정식 전 고추밭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바이러스병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잡초제거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원 기자kw2932@hanmail.net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주)신우개발

토목, 건축, 도장 시공전문

경주시 충효동 녹지길 34

☎054-749-2214~5

FAX 054-749-2216

SINCE 1999

조방낙지

경주점 : 단체 환영

시내 국민은행 맞은편 골목

경주 노동동 271-2번지 ☎054-775-3002

현대봉황주점정 1시간 무료

주방장 추천메뉴

낙곱새

매운콩내낙지

연포탕

4월 14일

진흥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보조, 문화재전시, 강연, 답사

경북 경주시 화랑로 20, 전화 054) 748-7580, 팩스 054)748-7581

21세기 환경을 책임지는 사회적기업

(주)청초

준공청소, 방역전문

경주시 노서동 243-2 ☎ 010-7161-7939

情을 파는 행복아트!

중앙마트

T.775-324

경북 경주시 화랑로 42

중앙시장 공용주차장 옆

☎054-775-3241

최초로 시기와 용기에 맞춰낸

고집불통 고대사 다시 쓰기

한 종 필 20에서 70까지의 비밀과 안일

시종일관

고집불통 고대사 다시 쓰기

한 종 필 20에서 70까지의 비밀과 안일

道·포항·포스텍, 가속기 기반 신약프로젝트 추진

가속기클러스터협의회 신약분과위원회 개최… 신약개발에 박차

경북도와 포항시, 포스텍은 2일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 대회의실에서 가속기 기반 신약 프로젝트(NBA Project) 추진을 위한 가속기 클러스터 협의회 신약개발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북도 정병운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포항시 이기권 창조경제국장, 포스텍 생명공학연구

센터 장승기센터장, 고인수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추진단장, 김재영 포항가속기연구소 산업기술융합센터장, 김병문 서울대 화학부 교수 등의 신약전문가가 대거 참석해 가속기 기반 신약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자문과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유지 전략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신약분과위원회’는 지난 2월 2일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Health care 시장 선점을 위한 가속기 기반 10대 첨단 신산업 육성 전략 발표 후 가속기 클러스터 협의회 중 가장 먼저 위원회를 구성, 전문가회의를 가지게 됐다.

앞으로 신약분과위원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4세대방사광가속기와 협

력해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전략 모색과 기술 자문을 하고, 지역에 국내외 제약사와 연구소 분소 유치에 필요한 역할과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국가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해 포항으로 유치하기 위한 사업추진 전략 자문·계획수립 등에 대한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국내 유명 제약사 전문가·가속기 운영 전문가

그룹 등을 참여시켜 신약개발에 올인 할 예정이다.

이기권 창조경제국장은 “가속기 클러스터 협의회와 신약분과위원회가 가장 먼저 구성된 만큼, 바이오분야 미래 먹거리 신산업 발굴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 신약개발을 위한 싱크탱크(Think Tank)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동구 기자aa761536@naver.com

LOCAL NEWS

구미 김천
칠곡 고령
성주 의성
군위 상주

경상투데이

2016년 5월 3일 화요일

9

경산, 동남아 무역사절단 파견 3개 업체 25만弗 계약체결 성과

경산시는 지난 달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동남아 3개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3개 업체에서 25만 달러 계약을 체결 했다. 이번 무역 사절단은 ㈜일신산업 등 13개 중소기업체를 무역사절단으로 구성,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시장조사 및 현지공장 방문 등 으로 이어졌다.

이중 이번 동남아무역사절단 참가업체들 중에서 성과를 거둔 업체는 ㈜소리소, ㈜니텍스제침 등 3개 업체로 ㈜소리소는 동남아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수년전부터 현지시장에 맞는 특성화된 기획제품을 개발, 말레이시아 바이어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현지에서 10만달러의 계약체결 및 23만달러의 향후 계약을 앞두고 있다.

또한 섬유제침 업체인 ㈜니텍스제침도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섬유기계부속 및 소모품 수입 판매업체인 Neetex Trading社와는 3만달러의 현지계약 체결과 ㈜3DAMO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프랑스산 탈모방지샴푸를 유통판매하고 있는 Tam Kieu(유통회사)社와의 상담에서 샘플용 100세트 12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 시켰다.

변창상 기자bcs5425@hanmail.net

청도군체육회 “그동안 같고 닮은 기량, 마음껏 펼쳐요”



이승율 군수, 체육회 고문 등이 볼링팀 훈련장을 찾아 격려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제54회 경북도민체전 참여 선수단 격려

이승율 청도군체육회장은 체육회 고문 및 임원 10여명과 함께 각 종목별 훈련장을 찾아 오는 6일부터 안동에서 개최되는 제54회 경북도민체전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격려했다.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안동시에서 열리는 제54회 도민체전에 육상 등 15개 전종목에 임원 88명, 선수297명 등 총 380명이 출전한다.

청도군선수단은 이번 대회 출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종목별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얼마 남지 않은 훈련기간 동안 더욱 기량을 닦아 좋은 성적을 올린다는 각오로 강도 높은 훈련에 임하고 있다.

이승율 군수는 “청도군민을 대표한다는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그동안 준비한 훈련을 바탕으로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필승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 달라”며 선수들에게 전선을 당부했다.

한편, 청도군은 실과소별로 종목별 담당제를 실시해 바쁜 업무중에도 직원들이 수시로 훈련장을 찾아 체전을 준비하는 선수들을 격려했다.

김희동 기자press88@hanmail.net



영덕,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장엄등 점등

영덕군은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올해 처음으로 장엄등을 제작해 지난 달 29일 오후 강구 삼사해상공원 입구에서 점등식을 가졌다.

이날 점등식에는 이희진 군수, 강석호 국회의원, 이강석 군의장, 도의원, 군의원과 기관단체장 등을 비롯해 관내 각 종단의 주지스님과 신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구 삼사해상공원 입구에 설치된 장엄등은 높이 9m, 넓이 4m의 다보

탑 모양의 구조물로 제작됐으며, 영덕읍과 영해면 화전교차로에도 연꽃위에 동자승과 코끼리 모양의 장엄등을 설치해 지난 달 2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불을 밝히며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한다.

이희진 군수는 “장엄등이 군민 모두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모두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영덕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임상휘 기자shlim9752@hanmail.net

포항다문화센터 ‘5월 가정의 달’ 의미 배운다

결혼이민여성 100여명 대상 카네이션 화분 만들기 교육

포항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윤영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2일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오천교회 교육장에서 집합 한국어 교육 수강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카네이션 화분 만들기를 실시했다.

이번 카네이션 화분 만들기 교육은 결혼이민여성에게 한국의 어머니날의 의미를 알려줌과 동시에, 카네이션을 직접 만들어보고 가족에게 전달함으로써 가족 간의 친밀감 증진 및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했다.

카네이션화분 만들기를 진행하는 한국어강사 8명은 앞서 클레이 강사와 만남을 가져 카네이션화분 만드는 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았다.

교육에 참여한 찐띠끼우화(베트남) 씨는“점핑클레이로 카네이션 만드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었다”며 “시아머니께 이걸 가져다드리면 기뻐하실 것 같아서 빨리 어머니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영란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카네이션화분 만들기를 통해서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잊지 못할 어머니날을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포항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선거교육, 운전면허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컴퓨터교육, 집합한국어교육, 방한한국어교육, 자조모임, 상담, 통번역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jg7941@naver.com

영천새일센터 “새희망 찾아요” 시민 찾아가는 홍보 활동 전개

영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현숙)는 지난 달 29일 시민회관에서 영화 관람객을 대상으로 영천새일센터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여성 구직자들의 센터 이용률 및 취업률을 높이고자 관람객 300여명에게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전날에도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배움나눔장터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영천새일센터는 국비 직업교육훈련인 실버케어관리사 양성과정을 2일부터 운영하며 오는 7월에는 방과후지도사 양성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인 새일(Job)찾기 프로그램을 접수 중에 있다.

교육문화센터 3층에 위치한 영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해5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지정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창업과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직업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박삼진 기자wbat12@naver.com

천혜의 자연과 숨결이 깃든 녹색관광도시

Kimcheon

www.gimcheon.go.kr

김천은 황악산 직지사, 청암사, 수도산 자연휴양림, 부항댐 오토캠핑장 등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관광자원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직지사

청암사

수도산 자연휴양림

부항댐 오토캠핑장

예천에서 시작하는 ‘행복 인생 2막’ 활짝

예천군, 미래창조 귀농귀촌 박람회서 도시민 유치 나서

예천군은 맞춤형 귀농·귀촌정책 홍보를 위해 지난 4월 29일~5월 1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2016 미래창조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상담 홍보관을 운영해 도시민 귀농유치 홍보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했으며, 사회 흐름이 되고 있는 귀농귀촌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6차 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지자체 농업 비전 제시로 귀농귀촌에 대한 대국민 인식 변화 유도 와 관심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맞춰 예천군은 현재 추진 중인 귀농정책, 귀농관련 교육과 농지구입, 자금지원 등 귀농인들이 꼭 알아야 할

종합정보와 각종 지원사업 등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17일간 열리는 '2016 예천세계군축엑스포' 홍보도 병행해 상담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히, 귀농인들이 직접 생산한 약도라지, 마카, 벌꿀, 참기름, 호박분말 등을 전시 했을 뿐 아니라 바쁜 농사일을 제쳐두고 성공적인 귀농으로 모범이 되고 있는 귀농인회 회원들의 현실감 있는 상담으로 예비 귀농인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예천군 관계자는 “안정적 귀농 정착을 위해서는 농촌에 대한 이해가 밑바탕이 돼야 하므로 이번행사를 통해 도시민이 농촌에 대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귀농귀촌에 대한 현실적 감각을 심어줬으며 앞으로 도시민 유치를 위해 다양한 시책개발과 홍보



행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덕수 기자djang7@naver.com

도, 금융취약계층 자립 돕는다

경북도는 이달 말까지 금융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및 탈빈곤 기반 조성을 위한 '금융취약계층자립지원 시범사업(드림 셋)'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 관계자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자 및 그 가구원이다. 신청방법은 해당 기관의 추천서를 받아 시·군이나 읍·면·동에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다. 또한 3년간 시행되는 시범사업인 만큼 지자체 재량으로 중위소득 60%까지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이는 전국 7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도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후 경북광역자활센터(054-652-5777)를 중심으로 9개 시·군, 10개 지역자활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참여 시·군은 포항시(포항·포항나눔), 경주시, 김천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성주군, 칠곡군, 봉화군이다. 5월부터 영주시와 의성군까지 사업이 확대 추진된다. 경북도 신용·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금융취약계층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과 대상자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특화된 자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경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사활’

‘일취월장 온라인 취업박람회’ 내달 13일까지 개최

경북도는 오는 6월 13일까지 '2016 경북청년 일취월장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대구·경북 우수기업 2000여개 업체가 참여해 300여명 채용을 목표로 추진된다.

박람회 주소는(http://gb2016.jobkorea.co.kr)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 '경북 온라인 취업박람회'로 검색하면 된다. 구직자는 회원가입 후 취업희망 기업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또 이력서 작성, 취업준비 상담사례 등의 취업가이드와 자기소개서 면접 답변 사전 등 개인서비스 메뉴를 통해 다양한 취업정보가 제공된다. 특히 박람회는 이달 개최되는 '2016 경북 산·학·관 일자리 한마당' 과도 연계돼 온라인 박람회를 홍보하고, 현장 홍보부스 설치를 통한 취업정보 제공

등 온·오프라인(On-Off line) 사업이 동시에 추진된다. 경북도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온라인 취업 박람회가 청년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중국 1위 통신사 차이나모바일 공급 5G 기술 대한 한·중 협력방안 모색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세미나 개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원장 차종범)이 차이나 모바일 인증랩 국내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함에 따라 차이나 모바일 사업자 인증 획득이 국내에서도 가능케 됐다. 또한, 국내 모바일 산업 관련 기업이 중국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술원은 지난달 28일 모바일융합기술센터에서 중국 통신사업자 및 미래창조과학부, 경북도, 구미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TP)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통신사업자 인증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 1위 통신사 차이나모바일에 공급을 위한 국내 인증랩 구축 및 LTE-TDD 등 5G 기술에 대한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

다. 이날 행사는 GERI가 수행중인 해외 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사업의 일환이다. 세미나는 차이나모바일 TD-LTE NV-IOT 인증기술 현황TD-LTE 기술트렌드 및 글로벌 확산 계획 등 5G 기술개발 및 상용화 현황에 대해 차이나 모바일 CTO 리우팡이(Guangyi Liu)와 차이나모바일 TD-LTE 장비 공급 1위 업체인 ZTE 부사장 한강(Han Gang) 등의 초청 강연으로 구성됐다. 차종범 원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차이나 모바일에 공급되는 단말기와 모듈의 인증이 더욱 가시화됐다”며 “차이나모바일 인증랩의 성공적 구축을 통해 국내 모바일 산업 관련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가 크게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익분 기자ub0104@hanmail.net



대구百, 어린이날 선물 뽕뽕 ‘우리아이 행복박람회’ 진행

대백프라자 10층 프라임홀은 4일부터 8일까지 '제2회 대백 우리아이 행복박람회'를 진행한다. 박람회에는 명품페인트 제조사 '벤자민무어', 친환경핸드메이드가구 '발도로프', 아동서적놀이교구 '북까페', 영어교육 '잉글리쉬에그', 수학적원리 교구체험 '로보토리' 등 다양한 유아동 브랜드들이 참가한다.

(사진제공=대구백화점)

“기업가 정신 어릴 때부터 배워요”

영천상의, 경제교실 열어

지역 어린이들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돕고 지역 경제를 알아보는 어린이 경제교실이 열려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영천상공회의소(회장 송재열)는 지난 달 29일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어린이경제교실을 개최해 어린이들이 경제를 쉽게 이해하고 기업가 정신을 함양토록 했다. 이날 경제교실에는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 36명이 참여했으며, 영천시청과 영천YMCA의 협조를 통해 지역 경제 살펴보기, 쉬운 경제용어 풀이, 지역 기업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참여한 어린이들은 이날 수업을 통해서 경제가 어렵지 않고 친근감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으며, 직접 CEO가 되어 손익계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해 봄으로서 재미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삼진 기자wba112@naver.com

빚이 많아 힘드십니까?
신용회복위원회가 도와드립니다

신용 Up
채무 Down

www.ccrs.or.kr

맞춤상담,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 개인워크아웃
-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신청
무료지원

- 법원신청서 서류작성
- 법원 접수 무료지원

대학생·청년 햇살론

- 생활안정자금대출
- 고금리전환대출

취업지원 신용교육

- 구직 희망자에게 취업지원
- 학생 및 일반인 신용교육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 채무자들의 신용회복과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공익법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상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서류작성 대행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브로커에 주의하십시오.

신용회복위원회
지 부 안 내

수도권 : 서울중앙, 영등포, 동서로, 노원, 인천, 경기도수원, 부천, 안산, 의정부, 고양, 성남
경상권 : 부산, 서부산, 대구, 마산, 울산, 포항, 창원권 : 김해, 창원
전라권 : 광주, 전주, 순천
충청권 : 대전, 청주, 천안, 제주권 : 제주

상담 전화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Credit Counseling & Recovery Service

판소리와 춤, 대금가락의 신명나는 만남

이선유 소리꾼·윤기명 예인, 안동 태사묘서 공연

(사)동편제 이선유판소리보존회가 윤기명 국악원에 안동 지부를 마련하고 오는 7일 오후 4시 안동 태사묘에서 젊은 소리꾼들의 이선유 판소리와 윤기명 예인(사진)의 춤, 대금가락이 한데 어우러지는 공연을 개최한다.

최난경 이사장(사진)은 국악 이론 전공자(공연 예술)로 안동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현재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안동과의 인연이 아주 깊다.

‘(사) 동편제 이선유 판소리 보존회’는 근대 판소리 5대 명창 중 한 사람인 이선유(1873-1949)의 동편제 소리를 보존하고 계승하고자 설립된 단체이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고, 안동, 하동,

대전의 세 곳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기명 예인’은 경기도 가평에서 태어나 안동(한월당 김평필 후손 가문)으로 시집와 50여 년간 살면서 ‘국악의 불모지였던 안동의 국악을 일궈온 원로 국악인’이다.

그녀가 ‘(사) 동편제 이선유 판소리 보존회’와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은 주로 전통을 제대로 가르치고자 심혈을 기울여왔으며 공감대 형성이 수월했기 때문이다.

이번 공연에는 ‘(사) 동편제 이선유 판소리 보존회’의 이사장인 최난경이 연출을 맡고, 소속 단원인 김문희, 문수현, 김시량은 소리를 하며, 박명연



은 북반주를 담당한다.

또 ‘이생강류 대금산조 원형 보존회(안동 즉향회) 안동지부장’인 윤기명

은 춤과 대금을 연주하고, 안동 즉향회의 김덕년, 이명희, 박해창, 김태진, 박철종, 이종만은 스승인 윤기명과 함께 대금 합주를 한다.

이번 공연을 계기로 ‘사단법인 동편제 이선유 판소리 보존회’와 ‘윤기명 예인’은 안동에서 이선유의 예술세계를 널리 알리고 보급하는 데에 함께 할 일이 많으리라 기대된다.

‘안동’은 각광받는 유교문화 도시이므로, 유교적 이념이 투철하게 반영돼 있는 ‘이선유 소리’의 특성을 드러내는 데에 아주 적합한 곳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윤기명 예인은 오랫동안 국악의 여러 부분을 두루 섭렵해 더욱 그 활약이 기대된다.

윤재철 기자chal2015@naver.com

“자연은 갑질을 하지 않는다”



최삼규 PD 30년 야생 전문록

‘다시 쓰는 동물의 왕국’ 발간

MBC에서 오랜 시간 오로지 자연 다큐멘터리에만 천착해 온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자연 다큐멘터리스트 최삼규 PD의 30년 야생 전문록 ‘다시 쓰는 동물의 왕국’이 화제다.

‘다시 쓰는 동물의 왕국’은 그가 꾸준히 천착해온 자연 다큐멘터리 작업의 연장선이자 최종 완결판이라 할 만하다.

최 PD는 ‘PD수첩’의 열혈 피디로 출발했지만, 뒤늦게 자연의 심오한 섭리와 회복력에 푹 빠져 첫 작품 ‘곤충의 사랑’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0여 편의 자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어미새의 사랑’, ‘DMZ는 살아 있다’, ‘황새’, ‘한국 표범’, ‘푸른 늑대’, ‘한반도의 지붕 개마고원을 가다’ 등 한국 TV 자연 다큐멘터리 역사를 다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새로운 주제,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감성의 한국형 자연 다큐멘터리의 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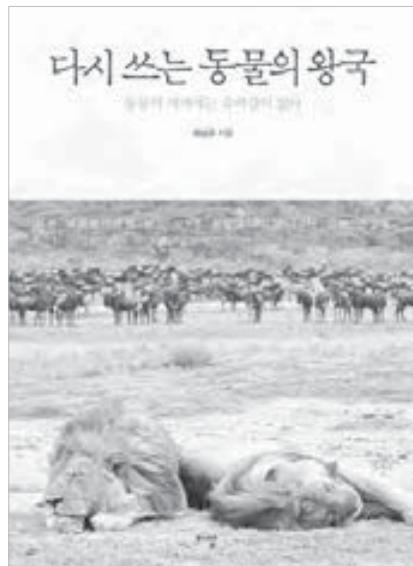
야생 동물을 다룬 자연 다큐멘터리라고는 BBC나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 제작한 수입산 프로그램이 전부였던 시절, 그가 제작한 한국형 자연 다큐멘터리는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뭔가가 있었다.

그는 ‘야생의 초원, 세렝게티’, ‘라이온 킹’, ‘DMZ는 살아 있다’ 등의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찬사를 한 몸에 받았던 한국 자연 다큐멘터리의 장인이자,

BBC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서구의 자연 다큐멘터리 제작사들이 독점해 오던 아프리카 야생 동물 프로그램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한국 최초의 아프리카 야생 동물 프로그램 ‘야생의 초원, 세렝게티’, 마하레 침팬지들의 경이로운 생태를 담은 ‘탕가니카의 침팬지’, 사자의 고정관념을 전복한 ‘라이온 킹’ 등 새로운 신선한 감수성으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평과 찬사를 이끌어 냈다.

단지 ‘먹고 먹히는’ 야생의 약육강식이라는 살풍경 대신, 야생 동물의 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따뜻한 감동 스토리를 포착해 시청자들에게 보여줬다.

그가 오랜 시간 예민하고 끈질긴 관찰을 통해 지켜본 ‘리얼 동물의 왕국’



은 피비린내 풍기는 경쟁과 승자독식의 세계가 결코 아니었다. 저자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말은 단지 진화론적, 생물학적인 용어일 뿐 자연의 진정한 섭리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가 본 자연은 어떤 동물의 ‘갑질’도, 그 누구의 잉여와 축적도 허락하지 않는 세계다. 그러므로 치타나 사자 같은 육식동물이 야생의 지배자라는 생각은 크나큰 오산일 수 있다. 누구나 공평하게 자신의 삶을 살다 갈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돼 있는 세계, ‘조화와 공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야생의 본모습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프로그램 제작 당시의 소소한 에피소드를 통해 자연 다큐멘터리스트로서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면서도 재미난 일인지 이야기한다. 아프리카 야생 동물들의 결정적 한 방을 찍기 위해 때론 좌충우돌하고 때론 약전고투하는 그의 인간적인 모습은 결국 인간이란 자연 앞에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 책은 어쩌면 야생에서 살아가는 수천 수만 종의 동식물들이, 치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전하는 작지만 귀한 경고인지도 모른다.

최 PD는 ‘한국방송대상’ TV부문 최우수상, ‘세계야생동물영상제(Japan Wildlife Film Festival)’ 아시아·오세아니아 대상·심사위원 특별상·하나뿐인 지구상One-Planet Award, ‘시카고 국제 TV 페스티벌’ 우수상, ‘ABU’ 특별상, ‘방송위원회’ 대상, ‘백상에술대상’ TV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 등을 수상했다.

최삼규 지음/이상미디어/1만6000원
김희동 기자press88@hanmail.net



지난 1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6회 문경새재전국휘호대회’의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경새재전국휘호대회 ‘성료’… 한국 서예 발전에 이바지

한문·한글 부문 등 264명 참가

문경문화원(원장 현한근) 지난 1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제6회 문경새재전국휘호대회’를 개최했다.

6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한문 부문 145명, 한글 부문 50명, 문인화 부문 68명, 전각부문 1명 등 총 264명이 출전해 그동안 연마해 온 실력을 겨뤘다.

2014년부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

점제로 심사를 시작, 올해는 부문별로 3명의 심사위원들이 체점을 하고 이를 합산해 장려상까지 선정 후, 우수상부터 대상은 심사위원들의 합의로 선정했다.

또한 참가자들의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참가자들의 휴대폰을 회호가 끝날 때까지 밀봉할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 심사위원도 휴대폰을 모두 반납해 더욱 엄중하게 공정성을 기했다. 이후 심사위원들이 체점한 체점

표를 기록해 순위를 정하는 과정을 무대의 전광판에 공개해 참가자들이 점수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대상 수상자인 김영미(45)씨는 충남 아산에 거주하면서, 2015 전국서도민전 대상, 초대작가, 부산 서예대전 초대작가, 모악 서예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하는 등 서예계의 촉망받는 실력자이다.

또 한문부문 최우수상은 초서체로 유장경 선생의 시를 쓴 대구의 박영희

씨가, 한글부문 최우수상은 김상용 선생의 시 ‘남으로 창을 내겠소’를 쓴 서울의 신현에 씨가, 문인화 부문은 대전에서 출전한 조항진씨가 ‘묵연’으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로써 문경새재전국휘호대회는 총 5명의 초대작가를 배출했으며, 본 대회가 새로운 서예가의 등용문이자 한국 서예 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회로서 그 임지를 더욱 굳히게 됐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 분양문의 - 상가: 경주시 성건동 340-25 ☎(054)742-2009/ 아파트: 경주시 성건동 340-44 ☎(054)741-6700

동 정



▲최양식 경주시장은 3일 포항공항에서 열리는 ‘포항공항 재취항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3일 관내 식당에서 상공회의소 기관단체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3일 영천시 향군회관에서 열리는 제18차 재향군인회 영호남합참행사에 참석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3일 군청 상왕실에서 열리는 ‘비술산 참깨케이블가 설치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친환경적인 케이블가 설치에 대해 논의한다.



▲김형곤 성주군수는 3일 생명문화공원에서 열리는 세종대왕자태실 생명문화공원 준공식에 참석한다.



▲이회진 영덕군수는 3일 창포해맞이 축구장 일원에서 열리는 2016 경북도 청소년의 달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제18회 경북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영천 선수단, 금4·은7·동4 ‘쾌거’

영천시가 지난 달 28일 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18회 경북도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해 금메달 4개와 은메달 7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도내 23개의 시·군에서 관계인사 및 선수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 영천시는 선수 및 임원 150여명이 육상, 탁구 등 12종목에 출전해 타지역 선수들과 경합을 벌인 결과 불링-지체 스탠딩(남자부) 정대균, 탁구-지체(남자부) 강상호, 5km단축마라톤-지적(남자부) 장인호, 100m 달리기-지적학생(남자부) 박재윤이 각각 1위를 차지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김영석 시장은 경북도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임원 선수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삼진 기자wba112@naver.com

국립경주박물관 새얼굴 ‘유병하 관장’ 임명



지역민 소통 활발, 업무 기획력·추진력 탁월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자로 그간 공석으로 있던 국립경주박물관장에 유병하(사진, 56세) 국립전주박물관장을 임명했다.

신임 유 관장은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국립박물관에서 28년 이상 근무하며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팀장, 국립중앙박물관 연구기획부장, 국립공주박물관장, 국립춘천박물관장 등 요직을 두루 거

친 박물관 전문가이다.

특히 유 관장은 지역민들과 두루 소통하며, 업무의 기획력과 추진력이 강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국립전주박물관에 근무하던 1991년, 우리나라 유일의 바다제사유적인 부안 죽막동유적(扶安 竹幕洞遺蹟)을 찾아내 발굴하는 등 한국 고대 제사의례 연구의 권위자로서 관련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한편 국립경주박물관 재직시 신라고분 출토 유물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했으며 특히 미추왕릉지구에서 출토된 상감유리옥과 천마총 출토 채화판(彩畵板) 연구를 통해 신라 고고학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희동 기자press88@hanmail.net

문경전통발물레 경진대회, 강창성·주정훈 ‘대상’

문경전통찾사발축제에 특별행사인 전통 발물레 경진대회에서 문경 성주요의 강창성씨와 군산대학교의 주정훈씨가 각각 일반부와 학생부 우승을 차지했다.

문경전통발물레 경진대회는 문경이 전통 도예의 본 고장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전통 도예의 우수성과 보존 당위성을 홍보함은 물론 발 물레를 이용해 작품을 창작했던 선조들의 지혜와 일을 배우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일 열린 대학부에는 전국 14명의 대학생 도예가 지망생이 40분 동안 찻사발 3점,

항아리 1점을 전통 발물레로 빚는 기량을 겨뤄 최고의 솜씨를 뽐낸 주씨가 대상을 차지했다. 2일 열린 일반부에서는 11여명의 도예인이 실력을 겨뤄 강씨가 대상을 받았다.

대상에게는 중소기업청상장과 함께 상금 200만원이 지급되고, 우수상에는 상장과 각 100만원, 장려상 3명에는 상장과 각 50만원, 특별상 5명은 상장과 각 30만원의 상금이 지급됐으며, 단체상으로 선정된 단국대학에는 상장과 상금 50만원이 지급됐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경주새마을회, 교복나누기 행사 수익금 기부 ‘훈훈’

참가학교에 교복구입 지원금 전달

교복 나눔 행사를 실시해 모아진 수익금을 경주 지역학교 교복 구입비로 되돌려주는 흐뭇한 기부문화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뜨겁다.

2일 경주시새마을회는 경주시교육지원청에서 지난 2월에 실시한 사랑 나눔 교복나누기 행사 수익금 전액을 행사에 참여한 19개 학교에 하복 지원금으로 기부했다.

경주시와 경주시새마을회, 경주교육지원청, 포항MBC 공동주최로 열린 ‘2016 사랑 나눔 교복나누기 행사’에 지역 19개 학교 등에서 4,000여점의 교복을 모아 모인 320만원을

참가학교 하복 지원비로 지급했다.

4년 전부터 교복 나눔 행사를 실시해 지난 2013년~2014년 발생한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 돕기에 사용 됐으며, 지난해에도 발생한 수익금 230만원과 경주시새마을회 봉사활동으로 모금된 성금 270만원을 합쳐 500만원을 경주시장학재단에 기부한 바 있다.

박서규 경주시새마을회장은 “교복 물려주기들 통해 선·후배 간 우정을 돈독히 하고 자원 재사용의 의미부여 등 발생한 수익금을 학생들의 교복 구입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행사로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한 학교에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박형기 기자akgrudr167@hanmail.net



재경의성군향우회, 제7차 고향방문 행사 열어

재경의성군향우회(회장 지성하)와 재경의성군산악회(회장 김경환)는 지난 1일 의성군 가음면 빙계계곡 및 가음초등학교에서 제7차 고향방문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해 신원호 의성군회의회장 및 기관단체장 및 재대전의성군향우회(회장 이승완), 재대군의성군향우회(회장 김동균)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세무회계법인 화인 권혁창 대표는 고향의 인재육성을 위해 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훈훈한 고향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김주수 군수는 환영사에서 “향우회 여러분의 고향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의성군이 배후도시로써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살기좋은 의성군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매년 개최되는 고향방문 행사는 고향농산물 애용 및 홍보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 해 의성군 발전에 일축이 되고 있다.

신태호 기자aordi1958@naver.com



영덕군, 입장료 대신 라면 기부 특별콘서트 개최

영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권웅걸, 민간위원장 박한서)가 어려운 청소년을 돕기 위해 아주 특별한 콘서트를 연다.

‘청소년에게 희망을, 이웃에게 나눔’을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라면콘서트’는 출연자들의 재능기부와 후원금으로 7일 저녁 7시 영덕군민회관에서 열리며 입장료를 라면으로 대신해 받는다.

‘라면콘서트’ 입장료는 청소년은 라면 1봉지, 성인은 라면 1묶음으로 대신하며, 모아진 라면은 지역아동센터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전달된다.

이날 공연은 출연진들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음악회로 진행되며 교통사고 후 장애

를 극복하며 새 인생을 살아가는 바리스타 김진혁의 삶의 이야기와 유포늬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또 이태리 유학으로 성악을 전공한 구세균 사관부부의 이웃사랑 이야기와 노래, 학창시절 성적 열등생이 음악에 심취해 재수와 재도전 끝에 서울대 음대에 합격한 음대생의 희망의 노래와 영덕여고 출신 첼리스트 김주희 교수의 아름다운 연주를 들을 수 있다.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영덕에서 문화적 혜택을 충분히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콘서트를 준비하게 됐다. 이날 많은 학생들과 가족들이 오셔서 희망의 노래를 같이 감상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상휘 기자shlim9752@hanmail.net



영천 “정신건강의 달, 생명존중의 참 뜻 배워요”

영천시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제4회 정신건강의 달(4월 4일)을 기념해 지난 4월을 정신건강의 달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영천제일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통과 공감’이라는 주제로 정신건강강좌를 통해 노인들의 우울증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분위기 확산에 노력했다.

또 제2탄약창 장병을 대상으로 ‘궁정심리와 만나다, 나+너=우리!’라는 주제로 대구대 심리학과 임영진 교수가 정신건강강좌를 개

최하여 다양한 연명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펼쳤다. 특히 완산동 일대에서 생명존중 캠페인을 전개해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에도 전력을 다했다.

구현진 보건소장은 최근 우울증과 자살률이 급속히 증가되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다양한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생명존중문화 분위기 조성고 시민들의 정신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naver.com

“국민 위한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경주署, 신입순경 21명 파출소 집중 배치

경주지역으로 발령받은 새내기 경찰들이 국민의 든든한 지킴이와 시민들의 지팡이로 거듭나고자 각오를 다지고 시민들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일선 파출소로 집중 배치됐다.

2일 오전 경주경찰서 화랑마루(대회의실)에서 287기 신입 경찰관 21명 등 30명의 인사발령신고식을 했다.

이날 신고식에 이어 신입경찰관들이 일선 현장에서 잘 적응해 나아갈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는 간담회를 했다.

287기 신입경찰관들은 지난해 9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경찰관이 갖춰야 할 소양과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8개월간 전문교육과 경찰서 실습을 마치고 2일 경주경찰서 역전파출소 등 18개 파출소에 배치됐다.

강동파출소로 배치된 박동현 순경은 “경찰관이 되기 위해 최종시험에서 3번이나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며 “어렵게 들어온 만큼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경험을 많이 쌓아서 형사로 뛰어 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형기 기자qkrudr167@hanmail.net



영천 중앙동청년회, 한마음 경로잔치 열어

영천시 중앙동청년회(회장 최상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일 중앙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제20회 중앙동 한마음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지역기관 단체 및 기업체, 상가의 후원으로 열린 이 날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 600여 명을 초청했다.

영천문화봉사회의 공연과 어르신들의 노래

경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화합을 다지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김영석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영천시 발전을 위해 어르신들의 지혜와 고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naver.com

안동署, 전통시장서 사회악 근절 홍보 시행

안동경찰서(서장 박병우)는 2일 오전 10시 신시장을 방문해 국민안전권을 위협하는 4대 사회악(성·가정·학교폭력·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했다.

이날 홍보에는 여성청소년과장(경정 지원식) 등 여성청소년계 경찰관 5명 장남을 맞아 지역 소상공인과 방문객들을 상대로 홍보 전단과 물티슈를 배부하며 경찰의 4대 사회악 근

절 노력과 성과에 대해 홍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4대 사회악 근절을 지난 4월부터 매월 1~2회 장날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게릴라식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바, 지역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 치안 관련 주민여론을 수렴해 지역 치안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윤재철 기자chal2015@naver.com



용암사 신도회, 봉화군 법전면에 쌀 38포 기부

서울 광진구 용암사 신도회(주지 관오 당법음 스님)는 지난달 28일 봉화군 법전면 내 저소득 세대를 위해 쌀(20kg) 38포를 법전면 사무소에 전달했다.

지난 2월 봉화군 법전면 봉화요양원에 200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지원한 후 2개월 만

에 또 한 번의 은정의 손길을 베풀었다.

김복규 면장은 “우리 면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내주신 쌀은 꼭 필요한 가정에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효환 기자ryuhh8080@daum.net



고령노인회 성산면분회장, 정기총회 개최

고령군노인회 성산면분회장(나진도)은 2일 면노인회관에서 노인회원과 관내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들을

회원 만장일치로 연임토록 결의했다.

나진도 노인회장은 “노인이 모범을 보여 회원 간 단결로 본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상주署, 수시 인사발령 대상자 신고식 가져

상주경찰서(서장 김환권)는 2일 오전 서장실에서 수시 인사발령 대상자 14명에 대한 발령신고식을 가졌다.

이번 수시 인사를 지난 1월 신입순경 과정교육생 8명이 실습생 신분으로 전입돼 부서배

치 없이 실무업무를 보조해 왔으며, 지난달 29일 10개월간의 신입순경과정 교육을 모두 마쳐 이번엔 정식 부서발령을 냈고 기존 경찰관 6명도 희망부서를 배려해 발령했다.

조용덕 기자jyd5407@hanmail.net



사람, 사람들

경상투데이

2016년 5월 3일 화요일

13



포항, 폭력 없는 도시 조성 ‘앞장’

여성폭력상담시설협 캠페인 실시

포항시 여성폭력상담시설협의회는 2일 흥해시장에서 폭력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포항시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와 보호시설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경찰, 공무원 100여 명은 ‘폭력 없는 포항·안전한 포항’을 슬로건으로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윤영란 여성가족과장은 “증가하고 있는 여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인식의 변화를 끌어내 안전한 포항 건설을 위해 계속 캠페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근 기자jig7941@naver.com



제6회 문경새재전국휘호대회 개최

충남 아산 김영미 씨 수상 영예 얻어

문경문화원(원장 현한근) 주관으로 지난 1일 열린 제6회 문경새재전국휘호대회 한글 부문 대상에 김영미 씨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의 한문 부문은 초서체로 유장경 선생의 시를 쓴 대구의 박영희 씨가, 한글 부문은 김상용 선생의 시 ‘남으로 창을 내겠다’를 쓴 서울의 신현애 씨가, 문인화 부문은 대전에서 출전한 조향진 씨가 ‘묵연’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상 수상자인 김영미(45) 씨는 충남 아산에 거주하며 2015전국서도민전 대상, 초대작가, 부산 서예대전 초대작가, 모악 서예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하는 등 서예계의 촉망받는 실력자로 알려졌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위덕대, 숲 생태 체험 현장학습 실시

학생들에 자연 보호 중요성 강조

위덕대학교(총장 홍육헌) 학생 40여 명이 자연에서 고운 심성을 기를 수 있는 역량 배양을 목표로 경북숲해설가협회 경주지회(회장 김우석) 숲해설가들과 함께 지난달 30일 숲 생태 체험 현장학습을 했다.

이번 숲 생태현장학습은 경북산림환경연구원에서 협조해 진행된 행사로 위덕대학교 학생(1~4학년생) 40여 명이 참여해 숲의 기능, 숲 가족, 숲 생태 등 숲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전문해설가들의 설명과 실천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위덕대학교 송동영(철강 IT 공학부) 지도교수는 “숲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며 도심 및 핵가족 생활 속에서 무뎠져 가는 감성을 학습자 스스로 자연과 친숙해지며 풍부한 감성을 개발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숲 생태 체험 현장학습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동 기자press88@hanmail.net

신지은, LPGA 투어서 생애 첫 승리 ‘감격’

최종 14언더파 270타 기록

신지은(24·한화)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텍사스 숏아웃(총상금 130만 달러)에서 생애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신지은은 2일(한국시각) 미국 텍사스주 어빙의 라스 콜리나스 컨트리클럽(파71·6,462야드)에서 벌어진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잡아 4언더파 67타를 적어냈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70타를 기록한 신지은은 허미정(27·하나금융그룹)과 양희영(27·PNS), 제리나 필러(미국·이상 12언더파 272타) 등 공동 2위 그룹을 두 타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상금은 19만5000달러(약 2억 2200만 원)이다.

지난 2011년 LPGA투어에 뛰어난 신지은은 데뷔 이후 132개 대회에 출전한 끝에 첫 우승을 일궈냈다. 지난 2012년 HSBC챔피언스에서 기록한 준우승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던 신지은은 5년의

기다림 끝에 귀중한 우승을 차지하게 됐다.

신지은은 장하나(24·BC카드), 노무라 하루(일본)에 이어 올 시즌 세 번째로 개인 첫 우승의 기쁨을 맛본 선수가 됐다. 장하나와 노무라는 나란히 올 시즌 멀티우승을 기록했다.

신지은의 우승으로 인해 한국은 올 시즌 11개 대회에서 5번째 우승을 기록하게 됐다. 장하나가 2승, 김효주(21·롯데)와 김세영(23·미래에셋), 신지은이 각각 1승씩을 보냈다.

3라운드까지 필러에 2타 뒤진 공동 2위였던 신지은은 이날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쳐 보였다.

초반부터 빠르게 타수를 줄였다. 2번 홀(파4)과 3번 홀(파5)에서 연속 버디를 잡은 신지은은 5번 홀(파4)에서도 버디를 잡으면서 공동선두로 뛰어올랐다.

선두였던 필러가 전반에만 보기 3개를 기록하면서 흐트러졌고, 신지은은 선두로 나섰다.

신지은은 후반에도 선두 자리를 놓치

지 않았다. 그는 후반 첫 홀인 10번 홀(파5)에서 버디를 낚으면서 2위 그룹과의 격차를 벌렸다.

신지은은 이후 버디를 추가하지 못했지만, 타수를 잃지도 않았다.

허미정과 양희영 등 2, 3위 그룹도 더는 타수를 추가하지 못하면서 이 격차는 끝까지 유지됐다. 신지은은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도 파세이브를 기록하면서 우승을 예감했다.

결국 두 타차로 뒤지던 양희영의 이글샷이 홀컵에 미치지 못하면서 신지은의 우승이 확정됐다.

통산 세 번째 우승에 도전하던 허미정은 이날 이븐파 71타를 기록하면서 최종합계 12언더파로 공동 2위에 그쳤다. 버디를 5개나 잡았지만 보기도 5개 범한 것이 뼈아팠다.

양희영은 전반에 한 타를 줄였지만, 후반에 한 타를 잃으면서 역시 3라운드 성적인 12언더파 그대로 경기를 마쳤다.

우승·준우승을 기록한 세 명 외에도 한국 선수들은 ‘톱10’에만 무려 7명이



신지은(24·한화)이 2일(한국시각) 열린 LPGA투어 텍사스 숏아웃 최종 4라운드에서 7번 홀 티샷을 날리고 있다.

포진하는 괴력을 보였다.

최나연(29·SK텔레콤)과 지은희(30·한화), 김세영이 각각 7언더파 277타를 기록하면서 공동 7위에 올랐고, 4

번 홀(파3)에서 홀인원을 기록한 이미림(26·NH투자증권)도 최종합계 6언더파 278타로 공동 10위를 마크했다.

3라운드까지 중위권에 처져있던 전

인지(22·하이트진로)도 마지막 날 4타를 줄이는 저력을 보인 끝에 최종합계 5언더파 279타로 공동 1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세계 무대에서 통하는 김천실내수영장

캐나다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국가대표팀 전지훈련 실시

캐나다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듀엣 국가대표팀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전지훈련을 한다.

지난 2008년에 올림픽 최종 마무리 훈련을 위한 방문한 바 있는 캐나다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국가대표팀은 당시 전지훈련 기간 내내 훌륭한 수영장 시설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극찬을 한 바 있다.

오는 8월에 있는 리우올림픽 전지훈련지로 김천시를 다시 찾는 캐나다 국가대표팀은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올림

픽 메달 사냥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가며, 이외에도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2016년 한국 수영 국가대표 후보팀(다이빙·싱크로)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선수단 등이 각각 전지훈련을 다녀갔다.

김천실내수영장은 지난해 47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심 조정공사와 전광판교체 등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첨단시설을 갖춘 국내 최고의 수영장으로 거듭나 대한민국 수영 신기록 산실로 우뚝 서고 있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2015 문경세계군

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제96회 강원도 전국체전에서는 한국 신기록 10개를 쏟아내면서 주목받은 바 있으며, 지난 2월에 열린 김천전국수영대회에서는 자유형 800m 경기에서 한국 여자 수영의 미래라 불리는 조현주(울산스포츠과학고 1학년)의 한국 신기록(8분 41초 09)을 시작으로 171개의 대회 신기록을 쏟아내면서 한국 수영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지난 2006년 5월에 준공된 김천실내수영장은 자연채광과 환기시스템을 도입한 자연 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형의 쾌적한 실내수영장으로 건립됐다.

또한, 국제공인수영장 수심규정이 바빠에 따라 기존 135cm에서 180cm로

수심이 깊어져 선수가 입수 시 편안하고 안전한 자세로 입수할 수 있고, 향상된 부력으로 좋은 기록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수영 전문가의 평가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외 대회에서 풍성한 대회 신기록과 한국 신기록이 나오면서 한국 수영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 시의 한국 수영의 메카라는 명성이 이번 캐나다 국가대표팀의 방문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며 “우리 시를 찾은 캐나다 싱크로나이즈팀이 머무는 동안 훈련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kt760824@naver.com



경북도지사기 테니스대회, 성황리 마쳐

군부 청도군·시부 구미시 우승

경북도 테니스 동호인의 한마당 잔치인 제20회 경상북도지사기 테니스대회가 지난달 30일과 1일까지 양일간 고령 테니스장 외 보조경기장에서 열렸다.

고령군테니스협회(회장 최영기)는 지역 테니스 인구의 저변확대와 테니스 동호인들의 건강증진 및 상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지역에 유치했다.

경북테니스협회(협회장 최태식)가

주최하고, 고령군테니스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경북 도내 22개 시·군 400여 명이 참가해 열전을 펼쳤다.

경기는 시부와 군부로 나뉘 예선 조별리그를 거쳐 각 조 1·2위가 본선에 진출, 토너먼트로 우승 시·군을 정했다.

경기결과는 군부 우승은 청도군, 준우승 칠곡군, 3위 예천군, 장려상 성주군이 차지했으며 시부는 우승 구미시, 준우승, 경주시, 3위 경산시, 장려상 영주시가 차지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2016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단독 선두

2016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 한 달이 지났다. 두산 베어스가 막강한 마운드를 앞세워 단독 선두다.

두산은 1일 경기까지 18승 1무 6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 SK 와이번스(16승 10패)에 3경기 앞서 있다.

18승 중 선발 투수가 무려 16승을 책임졌다. 6승을 올린 에이스 니퍼트를 필두로 보우덴과 장원준이 4승, 유하관이 2승을 기록했다.

니퍼트의 초반 집주는 특히 무섭다. 니퍼트는 1일 KIA전에서 6%이닝 6피안타 1피홈런 2볼넷 3탈삼진 1실점(무자책)으로 역투하면서 승리투수가 됐다. 개막 후 6번 등판해 역대 개막 이후 최다 선발등판 연속경기 승리 2위(역대 1위 김일웅 1988년 8연승)에 올랐다.

니퍼트가 잘할 수 있던 이유 중 하나는 타선의 지원이다. 니퍼트가 등판한 6경기에서 두산은 총 49점을 뽑아냈다.

그러나 지원에만 의존하진 않았다. 지난달 20일 kt전(5이닝 4실점)을 제외하고 다른 경기는 모두 퀄리티 스타트(6이닝 3자책 이하)를 기록했다. 평균자책점도 2.50으로 뛰어나고 탈삼진도 46개를 잡아내면서 1위다.

새 외국인 투수 보우덴도 눈에 띄는데 한국 프로야구에 데뷔하자마자 보우덴은 4연승을 기록했다. 직구와 포크볼을 앞세운 보우덴은 평균자책점 1.13을 기록, 이 부문 1위에 올랐다.

지난해 두산으로 이적해 12승을 올렸던 장원준은 올해도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장원준은 5경기에서 4승 무패, 평균자책점 3.19의 성적을 올리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한화전에서 승리를 챙겨 역대 27번째이자 좌완으로서는 4번째로 통산 100승을 완성했다.

지난해 18승으로 다승 2위에 올랐던 유하관은 시즌 첫 2경기에서 8%이닝을 던져 무려 12점을 내줬지만 이후 3경기에서는 2승을 챙겼고 실점은 단 3점(2자책)에 불과했다.

또한, 볼펜에서 정재훈이 14경기에서 20이닝을 던져 평균자책점 1.35 7홀드를 기록 중이다.

마무리 이현승은 7세이브로 뒷문을 단단하게 지키고 있다.

선발과 볼펜 모두 안정감을 보이면서 두산은 평균자책점 3.08로 리그 전체 1위이다.

잠잠하던 에릭 테임즈(30·NC다이노스)의 방망이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3경기 연속 홈런포를 터트리면서 2년 연속 MVP에 대한 시동을 걸었다.

테임즈는 1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4타수 2안타(1홈런) 1타점을 터트렸다.

테임즈는 주말 3연전 내내 사를 연속 타구를 담장 밖으로 날려버리면서 시즌 6번째 홈런을 기록했다.

롯데와의 3연전에 12타수 7안타(3홈런) 7타점을 몰아친 테임즈의 올 시즌 성적은 0.337(89타수 30안타) 6홈런 18타점이었다.

지난해 142경기에서 타율 0.381 180안타 47홈런 140타점 40도루를 달성했던 테임즈는 박병호(미네소타)를 따돌리고 프로야구 최고의 별이 됐다.

그는 KBO리그 최초로 40홈런-40도루와 함께 평생 한 번도 힘들다는 사이클링히트(1경기에 안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모두 기록하는 것)를 1년 사이 2차례나 달성했다.

그렇지만 많은 기대와 달리 올 시즌 초반에는 테임즈의 방망이가 잠잠했다. 특히 테임즈 특유의 장타가 사라졌다. 개막전에서 홈런을 때려낸 뒤 지난달 13일 삼성전까지 10경기에서 1홈런에 그쳤다. 극단적인 시프트 수비와 투수들의 집중 견제 속에 타율도 2할대 초반에 머물렀다.

그러나 테임즈는 오히려 담담했다.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서히 타격감을 끌어올린 그는 지난 주말 롯데와의 3연전에서 괴물 같은 모



습으로 돌아왔다. 테임즈는 6개의 홈런으로 히메네스(LG·9개)에 이어 홈런 공동 2위로 뛰어올랐다.

감을 잡은 테임즈의 활약에 힘입어

NC도 13승 11패로 단독 3위로 올라서며 히메네스(LG·9개)에 이어 홈런

공동 2위로 뛰어올랐다. 테임즈는 3일 수원 kt전에서 4경기 연속 홈런포에 도전한다.

박병호, 득점권 첫 수확 불구 미네소타 ‘역전패’

미네소타 트윈스 박병호(30)가 빅리그 입성 이후 처음으로 득점권에서 타점을 수확했다.

박병호는 2일(이하 한국시각)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필드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홈 경기에서 5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3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으나 팀은 5-6으로 역전패했다.

이날 1안타를 때려낸 박병호의 시즌 타율은 0.227에서 0.232로 소폭 상승했다. 박병호는 올해 20경기에 나와 타율

0.232(69타수 16안타) 6홈런 9타점을 기록 중이다.

박병호는 0-0으로 팽팽하던 1회 말 2사 1, 2루에서 맞은 첫 번째 타석에서 마이크 펠프리를 상대로 풀카운트 접전 끝에 우전 안타로 타점을 뽑아냈다. 박병호는 6구째 몸쪽으로 파고드는 93마일(약 150km)짜리 싱커를 밀어쳐 1, 2루 사이를 뚫어내는 안타를 터트렸다.

박병호는 16타수 만에 득점권 기회를 살리면서 시즌 9번째 타점을 뽑아냈다. 그러나 그는 2-1로 끌고 가던 3회 말

무사 2, 3루의 기회를 잡았지만, 삼진으로 물러났고 2볼 2스트라이크에서 6구째 81마일짜리 슬라이더에 파울팁 삼진을 당했다.

박병호는 5회 말에 맞이한 3번째 득점권 기회에서는 볼넷을 골라냈다. 3-2로 리드를 잡은 가운데 무사 1, 3루에서 박병호가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서 상대 투수의 공을 골라 1루로 걸어나갔다.

박병호는 7회 1사에서는 2루 땅볼 타구로 돌아섰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미네소타는 역

전패를 당했다. 5-2까지 끌고 가던 미네소타는 6회초 닉 카스테야노스에게 동점 스리런 홈런을 맞았고, 8회초 2사 1루에서 제로드 샬탈라마키에게 좌익선상 결승 적시타를 허용했다.

미네소타는 9회말 2사에서 4번 미겔 사노가 우월 2루타를 치고 3루로 가다 주루사를 당해 박병호까지 기회가 오지 않고 끝이 났다. 미네소타는 7승 18패로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최하위에 머물렀고 디트로이트는 14승 10패로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2위를 유지했다.

박 창 칼 럼

우리가 꿈꾸는 사회

총선이 끝난 지 2주가 흘렀으나 여야는 아직도 싸움질이다.

완장 찬 당선자들의 행보가 집중되는데 이들이 꿈꾸는 사회는 서민 상상을 초월한다.

사실 눈에 보이는 완장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나 차는 것으로,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다. 배후인 진짜 완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 베일에 싸이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누가 완장인가. 그중 지나치게 권력화된 정치권 인사들, 일부 시민운동단체, 국내·외 막가파식 행동을 일삼는 일부 노동운동가, 영향력이 향상돼 정부 정책도 흔드는 운동권 교원단체들을 빼놓을수 없다.

별볼일 없는 인간들의 꼴불견 권력행사가 곧 완장으로 상징된다.

상향식 공전을 두고 총선 정치권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한 실세 여당간부는 당대표 주변에 대표를 위해 완장 찬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한다며 공격했다. 이에 반대진영은 권력 주변 완장 찬 수준 낮은 사람들이 권력자 이미지를 손상하고 있다며 한 방 쏘았다. 완장 싸움이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전교조만 해도 이들이 반대하면, 여론의 지지를 받은 정부 정책도 시행이 어렵다.

반면에 이들이 강력히 주장하면, 위헌 소지마저 다분한 법안 입법도 강행된다. 전교



박 창 (편집국장)

조의 반대로 무능 교사 퇴출은 제외한 채 허울만 있는 교원평가제, 교육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거부해 본격 시행하지 못하는 수준별 이동수업, 종교계와 사학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아랑곳없이 이들의 주장대로 여권이 힘으로 밀어붙여 끝내 헌법 소원이 제기된 개정 사학법 등이 그 사례다.

전교조가 보이는 완장이라면 진짜 완장의 상징은 누구인가?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 체제를 흔들려는 세력, 이념이다.

전교조 교사들이 반(反)시장, 반기업, 반미 교육을 일삼고 시대착오적 평등주의를 고집하는 행태 등에서 진짜 완장의 짙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진보적 통일운동 진영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1일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의

신년 공동사설과 대남선전 활동 등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며 반보수대연합을 촉구한 것은 일차적으로 이들을 향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그동안 반미 정서를 부추기고 북한 정권을 떠받들다시피 하며, 통일지상주의를 펴오지 않았다면, 북한 당국이 자신들의 의도를 실현할 동지로 여겨 사실상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진보적 통일운동단체 인사들이 오래전 평양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통일대축전에 참가, 매년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의 날로 제정키로 북한과 임의 합의한 것도 완장이 아니면 보일 수 없다. 북한 당국이 사설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날에 대한 남북 공동기념일 지정을 제안하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의 기관지 제호를 우리 민족끼리로 바꾼 것도 그 완장들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수인 완장이건, 그 배후의 진짜 완장이건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들지 못하게 국민이 막아야 할 때다. 만일 같은 줄 알고서 남의 깃털을 가져다 아무렇게 휘두르신 분이 계신다면 보잘것없는 물건을 본래 자리로 되돌려 놓길 바란다.

요즘 완장 주고받는 정치판은 숯 주제에 겹침 나무라지 말라는 소리로 들린다.

독 자 기 고

112허위신고를 근절합시다!



배지윤 (김천콜역전파출소 순경)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다. 사소한 행동과 장난이 누구에겐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비단개구리만 해당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이웃이 112 허위신고로 손해 입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하루 평균 112신고 접수 약 5만 건 중, 약 2% 정도를 허위신고다. 그동안 경찰의 끊임없는 홍보·교육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한다.

허위신고의 내용도 다양한데 살인, 강도,

폭력 등의 내용으로 급박히 신고해 출동하면 경찰의 도움이 전혀 필요없거나 심지어 술에 만취해서, 심심해서라는 등 경찰관을 허탈하게 만드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112 허위신고 근절이 시급한 가장 큰 이유는 매우 급한 범죄현장의 일촉즉발 상황에서의 1·2분은 피해자에게 생명이 오가는 중요한 순간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허위전화로 인명구조를 위한 급속같은 시간인 골든타임을 놓쳐 버릴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서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을 상향 조정하고 그 정도가 중하거나 상습적이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도록 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해 대응한다.

하지만 중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허위신고가 이뤄지는 그 짧은 순간이 누군가에게 위급하고 생명이 오가는 긴박한 순간일 수 있고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가 내 가족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법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경상투데이

http://www.gyeongsangtoday.com

발행·편집인 이 승 협

편집국장 박 창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판매·광고국	(054)748-0070
편 집 부	<구내>1004	경영·관리국	<구내>1006
사 회 부	<구내>1006	F A X	(054)748-3663
사 회 2부	<구내>1005	구독·광고·제보 ☎054-748-0070 mail : gst3000@naver.com	
문 체 부	<구내>1007		
정 경 부	<구내>1008		

·경북 경주시 원화로 244(황오동)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당 500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 설

농업도 과학이다

경북 지역의 평균기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모든 작물의 생육 기간도 빠르거나 늦어지고 있다.

나무도 수종별로 영향을 받으면서 한때 자생지역이 가장 넓었던 소나무와 아카시아가 많이 감소했다.

그런데 한 발전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는 더 충격적이다.

기온이 오른다는 것은 모든 환경의 일대 변화가 온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해수면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 해안가는 물론이고 내륙에까지 국토 이용계획을 전면 변경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몰고 올 생태환경은 우리가 일찍 경험하지 못했던 대대적인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특히 농작물과 산림자원의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과 재배의 남방한계선이 조금씩 북쪽으로 이동하는 정도가 눈에 잡히는 우리의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외에는 지금껏 해왔던 방식을 별 우려 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벼나 밀 등 주요 곡물부터 과수, 채소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우리가 해마다 겪고 있는 특수 작물의 과잉재배와 품귀 현상도 따지고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예비식작과 대비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장기적인 측면과 단기적인 측면으로 나눠 철저하고 꼼꼼히 대응해야 한다.

예컨대 짧게는 5년에서 10년까지의 시기별 강수량 추이를 바탕으로 작물 재배 시기와 물량을 조정하고 영농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평소 농가에서 하던 대로 맡겨두니 작물별 생산량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다.

농민들이 밭을 통째로 갈아엎는 시위가 발생하면 그때야 부랴부랴 긴급예산을 편성하고 농가지원을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농업도 과학이다.

철저한 계획으로 생산물량과 출하 시기를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조정수나 가로수, 산림 재배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이 더욱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기온상승 추이로 볼 때 한강 이남 지방은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소나무 생육이 불가능할 것으로 진단된다.

조경수와 가로수는 한 도시의 품격을 결정할 만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100년 이상의 고목이 즐비한 도로는 그 자체가 관광 상품이다.

또한, 우리나라 산림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나무가 생육할 수 없다고 봤을 때 향후 산림녹화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하고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어린이날에 어린이를 생각한다

요즘 어린이들은 고달프다.

학교생활 외에도 학원과 과외에 시달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가 직장에 나간 사이 혼자 집에 남아 게임에 빠지다 보면 인터넷 중독이 되기도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 최고라는 통계에서 보듯이, 우리 어린이들은 각종 유해 환경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장차 나라를 책임질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봐야 할 기성세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곧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아 부모와 손잡고 놀이공원을 찾고 전국 곳곳에서 풍성한 잔치가 벌어지겠지만, 그 뒤편은 아ど고 우울한 것이 현실이다.

아동학대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심지어 성폭행 등 인면수심의 범죄를 어른들이 저지르고 있다.

또한, 전체 가구 중 7.8%(114만8000가구)가 부모의 이혼 등에 따라 편모나 편부의 한

부모 가정이다.

여기다가 한 해 평균 1만 명의 아이가 버려지고 있다니 이 어린이들이 겪는 심적 갈등과 외로움, 소외는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핵가족화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이혼가정이 급증하면서 출산과 육아 문제는 국가 현안으로 급속 이전되고 있다.

우리 어린이들이 미래의 능력 있는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능려야 할 권리를 지켜줘야 할 책임은 정부와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

특히 어린이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대할 때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어른들은 명심해야 한다.

365일, 어느 하루도 어린이들에게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온 가족이 어울려 어디서나 즐겁게 보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S Gumi

구미공단

구미공단 경쟁력 강화로

창조경제 선도

5공단 조기 조성 및 노후1공단 혁신·재생 단지 본격 추진

고부가 가치 주력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기능 강화

구미시



대한태권도협회



2016 Gyeongju Korea Open
Inter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s



2016 경주
코리아 오픈

국제태권도대회

2016. 6.30(목) ▶ 7.5(화)

경주실내체육관

